

# 國技 跆拳道

## 위한 알찬

지난 5월 우리는 또 하나의 밤의 結晶을 이루었다. 우리 손으로 지은 跆拳道 國技院에서 待望의 제 1회 世界選手權大會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성공이요 승리였다. 오랫동안의 꿈과 집념을 이루었다는 보람과 함께 엄청난 감동이 이 대회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땀흘려 가꾼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기쁨, 그리고 고남을 견디어 마침내 정상에 오른 정복의 감격을 우리는 함께 맛보았던 것이다.

그저 모인 것으로 기쁨을 다하고 이긴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커다란 뜻이 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跆拳道의 母體이며 本領을 자부하게 되고 跆拳道를 우리의 것으로부터 世界의 것으로 만들어 세계를 우리의 품속에 끌어 넣겠다는 雄志를 갖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 대회가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이 대회는 跆拳道千年의 一大轉機였을 뿐 아니라 跆拳道復興의 起點이기도 했던 것이다.

인류문명의 최고수준을 자부하는 프랑스와 독일, 富의 頂上 미국, 동양문화의 절수 중국, 그리고 미 개랄의 검은 대륙 「우간다」 등 피부가 저마다 다른 세계인들이 태극기 아래서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말 구호로 기량을 겨룰 때 누구나 민족적인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디서 또다시 이러한 감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이다. 태권도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표정이 외국인이나 임원들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翬鳳의 태권도 가족이 종주국에 와서 새로운 신비감과 기술의 무한성을 재인식했다는 평범한 사실보다도 과거 무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태권도를 세계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藝地

# 의 세계화를 前進을 하자

世界 跆拳道聯盟 總裁  
大韓 跆拳道協會 會長

金 雲 龍

作業을 끝내고 이제 本軌道에 올려 놓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지난날 태권도를 「스포츠」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표시해왔지만 이번의 세계대회로서 이러한 의구심을 일소하고 확실한 가능성과 자신을 얻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또한 시작에는 試行錯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는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세계 「스포츠」로서의 跆拳道의 科學化, 그리고 組織化를 위한 좋은 敎訓이 될 것이다.

지난 5월의 이 역사적인 기록이 훗날 史草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는 태권도인들의 意志와 努力에 달려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태권도인이 새 역사창조의 영광된 主體가 되어야 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임원이 될 수는 없다.

새 역사가 우리의 단합과 노력을 부르고 있다. 옛말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중단없는 전진——이것은 우리 태권도에도 절실한 課題인 것이다.

우리 앞에는 증증첩첩한 산이 가로 놓여 있다. 교본발간, 국기원의 완성, 세계태권도대회의 개최, 세계태권도연맹결성 등 많은 실적을 쌓았으나 앞으로 세계연맹의 組織強化, 國際競技規則의 研究와 國際審判講習, 태권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跆拳道大學의 設立, 「아시아」경기대회 및 「유럽컵」 종목 채택추진 등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월의 기쁨을 만족하고 만 있을 때가 아니다.

더욱 분발하여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앞장 전진을 계속할 것을 태권도인에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바이다.

## Foreword

### *Un Yong KIM*

President, th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President,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he world has witnessed another culmination of our self-less efforts and dedication last May.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was held at Kuk-Ki-Won (Taekwondo Center) which was built as the symbol and the world headquarters of Taekwondo.

The championship provided an opportunity not only to add new dimension and fame to Taekwondo but also to display the magnificent feat of the art.

Our heart was filled with pride and joy as we watched our long-cherished dreams being fulfilled at the world Taekwondo festival.

It was through this contest that we have proven ourselves as the mother of all Taekwondo nations.

It was through this contest that a firm foundation was laid for making Taekwondo, traditional martial art of Korea, as a sport on a worldwide scale.

This is why I would call the tournament as a milestone for a new era rather than merely as an achievement or a festival.

The championships has marked a turning point for two thousand year long Taekwondo history by providing a momentum for Taekwondo renaissance.

It was more significant in that the Championships was held not at an international arena or theater but at symbolic Taekwondo Center which we built, and in a tradition which we established and with rules which we developed. In other words, we were making the history.

Furthermore, the Taekwondo families of the world were for the first time exposed to the infinity of techniques and mysteries of Taekwondo in its mother nation. Now, our experiences in the world event have cleared up doubts in developing Taekwondo as world

sports. Many problems will be solved from the lesson we have acquired. Trial errors in initial stage of our efforts have to be exp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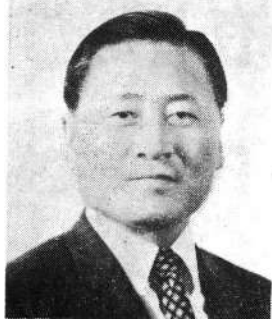
And yet, it is clear that the future of Taekwondo is entirely dependent upon shoulders of today's Taekwondo leader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ll of the Taekwondo practitioners should play a vital role in creating a new tradition and history of Taekwondo. New age calls for cooperation and endeavor. "Uninterrupted Advance" must become a motto for all Taekwondo men.

Achievements during the past two years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uch as publication of official textbook of Taekwondo, construction of a million dollar Taekwondo Center Kuk-Ki-Won, the holding of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he formation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re but the beginning of its move toward making Taekwondo as a true world sport.

Heaps of works are waiting for all of us ahead. Among them are the strengthening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iques and international match rules, the establishment of Taekwondo college, conduct of refresher course for international Taekwondo instructors and umpires, holding of the Asian and reg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campaign for its entry in the Asian and Olympic games, etc.

We should not sit idle with the joy of the successful May event. It is time for all of us to move forward under a traditional Taekwondo spirit for the cause and goal for which we all stand.

It is my most sincere wish that all Taekwondo men will join in our effort to develop and advance Taekwondo as a true world sport.



# 國威宣揚의 使者들에게

文化公報部長官  
尹 胄 榮

跆拳道는 우리 祖上이 남긴 수많은 傳承文化 가운데 가장 卓越한 文化遺産입니다.

高句麗 新羅 百濟의 三國時代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靑年들의 강건한 氣像을 高취하여 祖國을 守護하는 精神의인 支柱가 되어왔던 跆拳道는, 이제 世界人類의 善隣의 架橋를 놓는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로 發展하고 아울러 躍進하는 韓國의 새얼과 새힘을 誇示하는 「심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의 기반을 세계에 심고 있는 7백여 海外韓國人사법들이 이제 훌륭한 國威宣揚의 使者가 되고 있음은 實로 喜할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國內에서는 世界에 자랑한 「태권도」 태권도중앙도장을 完공하고, 제 1회 世界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跆拳道 宗主國」의 力量을 유감없이 과시한 것은 바로 우리의 國力伸張을 의미하는 「歷史的 壯舉」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 金雲龍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의 무절한 사명감과 의욕에 찬 推進力이 跆拳道의 跳躍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세계태권도를 끌고 나갈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연맹을 결성케 되었음은 晚時之歎이나 多 幸스러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태권도의 국제 보급활동이 산만하고 多元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제부터 조직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세계태권도 운동을 펼쳐나가기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파는 말도 있지만 着手는 곧 成功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태권도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와 세계연맹결성은 世界로 번는 韓國태권도의 더욱 알찬 飛躍을 다짐하는 첫 契機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여러 태권도인의 주어진 任務과 責任은 그 어느때 보다 무거워지게 되었을 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민족주체성은 바로 우리의 자주적 힘에 근거를 두는 것이며 「스포츠」에서의 힘은 國력의 큰 底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무대로한 태권도 보급운동은 단순한 技術의 傳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躍進韓國의 힘찬 새 「이미지」를 전파하는 훌륭한 弘報手段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海外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태권도 사법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곧 한국의 「이미지」인 것이며 그들의 향한 발음에 雄飛하는 우리의 意志가 맺어졌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태권도인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의진술의 화려한 꿈에 단 점착하기 전에 內實을 먼저 다져나가기 했다는 점 입니다.

그동안 태권도협회는 지도자 양성과 교육에 힘쓰고 있고 장차 태권도대학을 세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릇 「스포츠」활동은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과정이 더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인 여러분은 보다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대동단결하여 백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계속 國위 신상에 이바지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제 1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 역사에서 최초가 되는 세계 규모의 「스포츠즈」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5월 25일 하오 2시, 16개국 20개「팀」의 1백 61명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聖域 국기원에서 역사적인 개막을 보았다.

이날 개최식은 군악대의 「팔파매」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국 중부「팀」의 회숙「벨」 「코퀴」가 성조기를 들고 입장한 것을 선수로 「알파베트」순으로 각국 「팀」이 입장, 대회는 한껏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각국 선수단이 입장을 마치고 嚴雲奎 사무총장이 개최를 선언, 金雲龍 회장은 개최사에서 熱望하던 제1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또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중앙도장에서 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는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이니 만큼 준비나 경기진행면에 미흡함이 없지 않을 것이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대로 밀고나가 대회개막을 보았음을 알리고, 우리 고유의 무도인 국기 태권도를 세계의 「스포츠즈」로 승화시켜 우리 손으로 「몸」을 만들고 우리손으로 전통을 만들면서 세계대회를 열게 된다는 의의를 밝힌다고 했다.

梁鐸植 서울市長은 태권도정신으로 각국 간의 상호

이해와 유대강화의 계기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요지의 환영사와 閔寬植 문교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한국 대표 선수단의 金正泰 선수가 1백 61명 참가선수를 대표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선언, 입장식은 35분만에 끝났다.

입장식이 끝난 후 80여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연무시범단의 시범이 격파와 겨루기 품세 등, 다채롭게 펼쳐져 4천 내외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 시범은 태권도 종주국을 찾아온 외국 선수들의 경탄을 자아냈으며 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광경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30분간의 시범이 끝나고 정자 3시 4원 관중의 환영 속에 「프랑스」와 「우간다」가 격돌, 단체전에 들어갔다.

## 5월 25일(대회 제 1일)

인류문명권의 최고봉 「프랑스」와 검은 대륙 「아프리카」·「우간다」의 첫 대전은 흥미를 초월한 감격의 대전이였다.

우리 한국의 태권도가 인류의 증을 방대한 세계의 곳곳에 보급되어 그들을 수련시키고 또한 그들을 우리의 「몸」으로 불러들이어 힘과 기(技)를 겨루어보는 의의야말로 「스포츠즈」를 떠난 국위선양 및 우의증진에 지대

# 選手權大會盛了



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 ▲「프랑스」對「우간다」戰

「우간다」는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해외에 선수를 파견할만큼 질서를 갖지 못한 형편으로, 이들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는 「우간다」대사관 직원들도 의아할 정도로 힘든 잠판을 했다. 더욱 경비 전역을 정부보조로 출전하였음은 3년전 「우간다」에 정착한 이래로 태권도의 올바른 지도를 계속해온 金南錫 사범의 공로라고 보아야겠다.

한편 「유우톱」지역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李觀永 사범이 이끄는 「프랑스」·「팀」은 「마크스데」女史를 단장으로 출전하여 시선을 끌었다.

첫 대전에서 「우간다」의 「원테라」선수와 「프랑스」의 「프리스」선수 대전에, 「프리스」군이 일방적인 수세에 물리고 고전을 하게되자 「마크스데」女史는 손수전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고, 「프랑스」의 「그리아노」선수가 「우간다」의 「에일레」를 압도하자 밝은 웃음을 보였다.

「계입」은 박중한 대전이 되어 관중을 열광케 하고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결국 「우간다」「팀」은 비장의 선수 「키베카」를 기용

하여 「프랑스」를 3대 2로 제압하고 서전을 장식했다.

이 경기에서 두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주먹을, 「우간다」는 발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목할 사실은, 「가라메」의 아성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가라메」의 주공격기인 주먹을 많이 사용한 점, 순수하게 태권도를 익힌 「우간다」에서 태권도의 특징인 발의 사용을 최대함으로 구사한 점이다.

## ▲「멕시코」對 美國 中野戰

17개국 20개 출전「팀」 가운데 첫번째로 한국에 와서 1개월 동안 현지 훈련을 쌓은 미국 중부「팀」은 활력과 패기에 찬 모습으로 첫 대전에 나섰다.

반면 中南美에서 찾은 「멕시코」「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의 「팀」이다. 다만 4년전부터 文大元 「코쥬」가 日本 「가라메」 세(勢)를 누르고 활발한 보급을 하고 있음이 알려진 이른 바 「다크호스」「팀」이다.

몸집이 크고 수련경력이 오랜 미국 중부「팀」에 비해 3~4년의 수련경력을 갖은 「멕시코」「팀」의 대결은 미국 중부「팀」에 승리를 예상토록 주목을 끌었으나 경기가 시작되고 「스피디」한 앞차기와 정확한 지르기는 미

국 중부 「팀」을 완전히 압도, 6대 2로 승리하였다.

이런 예상밖의 결과에 대해 文大元 「코취」는 「멕시코」인들의 반미감정(反美感情)이 경기를 통해 발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음식 가운데 파와 고추를 또는 비빔밥과 김치를 좋아하는 「멕시코」 선수들의 식성(食性)이 한국인의 체질에 태권도가 적합하듯 그들에게 부합되는 운동으로 풀이했다.

반면 미국중부 「팀」의 「엘」감독은 강력(強敵)의 한국과 미국의 東·西 「팀」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경기에 임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자못 흥분해 했다.

#### ▲자유중국 對 「크메르」戰

자유중국은 6년 전부터 盧孝水 사범이 중국 고유의 국술(國術)과 日本 「가라테」의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크게 성장, 전군(全軍)의 필수과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중국 「팀」의 수준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정혁 사범과 김시중 사범이 인솔한 「크메르」 「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알려지진 않았다.

이 대전에서 중국은 「크메르」를 4대 0으로 가볍게 누르고 2회전에 올랐다.

#### ▲美國 西部 對 「싱가포르」

美國이 中, 東, 西部 「팀」은 美國에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3개 「팀」으로 분리 출전했다.

西部 「팀」의 경우, 안에보체를 고문으로 金大鉉 「코취」가 지역선발에서 뽑힌 선수를 이끌고 출전 「싱가포르」 「팀」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맞선 「싱가포르」, 「팀」은 72년 12월 본협회의 해외파견사범 전형에 합격하여 파견된 李聖洙 사범이 12명의 선수단과 7명의 응원단 겸 수련생을 인솔하고 열렬한 성원을 보였다. 이 가운데 4명의 여성들이 끼어 있어 이채를 더했는데 이들

여성들은 모두 태권도 유단자들이었다.

이 대전에서 「싱가포르」는 1대4로 졌다. 李聖洙 「코취」는 대천운이 지독히 나빴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미국 서부 「팀」의 강명구 단장은 20년의 보급 역사를 갖고 있는 美國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견제하고 힘과 技와 精神力의 三位一體를 훈련의 기본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강명구 단장은 美「캘리포니아」州立大學에서 체육학 조교수로 근무하는 한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존경받는 태권도인으로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의 미풍양속을 이해시키고 행동계 하는 일이 힘들었다고 했다.

장사범의 지도를 받은 미국 「팀」의 「매너」, 그것은 제 1회 세계대회를 통해 가장 팔목암만한 것이고 이들 선수들 모습에서 한국 태권도의 영리한 건진과 희망을 약속하는 모습이 보였다.

경기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숙연한 태도로 “사범님께 대하여 경뵈”이라고 또렷한 한국어 구령을 붙여 경의를 표한 일과, 미처 호구를 입지 못한 상대 선수를 기다릴 때 우왕좌왕 「코트」를 배회하지 않고 좌선하는 선사(禪師)의 모습으로 정연히 앉아 대기하는 태도는 중추국인 우리 한국 대표단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미더운 광경이었다.

또한 경기에 임하여 노도와 같이 표효하고 정밀한 기계가 움직이듯 작동하는 技의 발휘에 4천 관중은 놀랐고 바쁜 예절에 박수를 보냈다. 어떤 종류의 고도한 기술, 그것은 시간과 훈련으로 도달될 수 있으나, 무도(武道)를 통한 한국적 사고방식과 인격완성의 길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 ▲한국 對 「홍콩」戰

「홍·코트」에서 1회전을 맞은 한국과 원정 팀



「홍풍」의 대전은 처음부터 「홍풍」의 대전운(對戰運)에 막중한 「릴리켄」을 가산해야 했다.

더욱 힘과 技와 체력에서 적수가 되지 못한 「홍풍」은 5대 0, 「스프레이크」 敗를 당하고, 姜義聲과 金赫漢에 「라이팅민」과 「링극권」이 KO패를 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무릇 모든 「스포오즈」가 행운이나 요령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완벽하게 훈련된 한국 「팀」의 수준에 「홍풍」의 실력은 행운도 요령도 따르지 못하며 무산하고 말았다.

#### 5월 26일(대회 제 2일)

#### ▲「말레이저」對「우간다」戰

대회 이틀째가 되는 26일, 첫 대전은 「프랑스」를 누르고 오른 「우간다」 「팀」과 「말레이저」 「팀」이 각축 「우간다」는 첫날 승리의 여세를 밀고 나가 「말레이저」를 4대 0으로 일축해 버렸다. 이 「케임」은 태권도의 보급이 활발하고, 많은 기대와 촉망 속에 성장하고 있는 楊雨業 사범이 이끄는 「말레이저」의 패퇴, 그리고 검은 대륙 「우간다」의 진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 ▲「멕시코」對 중국戰

강호 美중부 「팀」을 제압하고 진출한 「멕시코」와 「크메르」를 4대 0으로 완파한 중국의 2대전은 박종환 기술의 대결로 처음부터 「시소·계일」의 연속이었다.

「멕시코」 「팀」과 중국 「팀」은 쌍방간에 부상자를 속출시키며 결전하다 3대 2로 자유중국이 신승하였다.

신체가 비슷하고 세기(細技)에 능한 두 「팀」의 대결은 슬타하는 혈전(血戰)의 연속으로, 최승을 다투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은 태권도가 무도에서 「스포오즈」로 길게 뿌리 내렸음을 눈으로 보고 확실히 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 ▲美國 東部 對 美國 西部

동일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선수들과 함께 구성된 임원진으로 내한하여 東, 西 「팀」으로 출전할 두 「팀」은 美國 지역 동경이명(同賞異名)의 「팀」이었다.

따라서 결승에 이르는 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전(一戰)이라도 피하는 편이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 西部 「팀」이 東部 「팀」에 기권했다.

#### ▲韓國 對 獨일戰

준결승전을 앞두고 한국과 독일 「팀」이 벌인 경기는 「시소」를 보이더라도 예상을 뒤엎고 5대 0이라는 일방적인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서독은 「유우름」 최태의 태권도 보급시장이라는 「팀」 구성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샤벨로」 선수

와 같은 훌륭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 「팀」의 맹렬한 공격에 위축, 그대로 주저 앉은 것은 실력의 차이도 그러커니와 한국의 「플」과, 경기기술 교류의 비속에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수련에 필히 수반하여야 할 예의규범의 결여는 아쉬운 일이었다.

#### ▲「우간다」對 自由中國戰

「프랑스」와 「말레이저」를 기세 좋게 누르고승자준결승전에 오른 「우간다」는 중국과의 대전에서 4대 0으로 참패했다.

「우간다」의 「오냥고」신수는 머리가 깨지고 턱을 3바늘이나 깨매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손, 혹은 발의 뼈가 탈골하거나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거동조차 못할 지경이 되었다.

「우간다」의 金南錫 「코워」는 『피부가 검어서일빛 보기에 단단한 것 같으나 하체가 약하고 특히 뼈가 가늘어 발목이나 다리에 골절상을 잘입는다』고 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선수들은 최승을 다투어 싸웠고 종주국의 중앙도장에서 세계의 기술에 도전했던 것으로 흠족히 생각한다고 말하고 중상으로 전신을 붕대로 감고 있던 「오냥고」 신수는 「태권도는 아픔을 자랑스럽게 참는 정신에 그 참내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어」가 4대 1이어서 중국이 일방적인 승리를 얻은 것으로 보이나 「우간다」의 「오캄군」이 중국의 「샤우보소」 선수에 KO패를 당하고 중국의 춘추화가 「보도트」 선수에 KO패를 당하는 공방전에 근소한 차이로 중국은 승리의 행운을 잡았다.

#### ▲美國 東部 對 韓國戰

이번 대회 우수승부 「팀」으로 예상되었던 한국과 미국 동부 「팀」의 대전은 처음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미국 동부 「팀」의 당당한 체력 그리고 수 많은 미국 지역대회를 석권한바 있는 「조 헤이스」의 세기(細技)는 빛나는 것이었다. 특히 완벽하다고 할만한 사제(師節)의 예의 그리고 경기「매너」, 심판에 공손한 태도는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유우름」 「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규범은, 피부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의 모습에서 느낄 때 모든 관중은 힘찬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 「팀」을 이끌고 이 대회에 참가한 황자, 민경호 권인문, 안예모, 강명구, 김일희, 김태현씨는 『미국 도장에 있어서 기술보다 예의를 중시하여, 심지어는 도장 근처에서조차 「캡」을 씌우며 배회하는 일은 금(禁)해왔다』고 말하고 기술의 지도보다 한국적 사교방식에 의한 한국의 예절을 이데시하고 실행시키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고 솔직했다.

한편 한국 「팀」은 제 1회 세계선수권의 패권을 어떤 「팀」에게도 넘겨 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의 발로였던지 이들을 맞아 특집취주 일변도의 속공을 썼을뿐 다양한 기술 발파와 외국 선수들이 기대하였을 절충한 비기(秘技)는 없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3대 0으로 미국 동부를 제압하고 의외의 종주국 우위(優位)를 재확인시켰다.

#### ▲「크메르」對 「멕시코」戰

이 경기는 패자 부활전 1회전 경기로서 「멕시코」는 「크메르」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4대 1로 제압하고 전열을 정비, 재기(再起)의 활로를 뚫었다.

#### ▲「홍콩」對 「독일」戰

「홍콩」은 한국과의 대전에서 5명 출전선수 전원이 부상을 입은바 있다.

대회 불운이라 할 첫 회전에 최강 한국의 공격, 그것은 「팀」의 재구성을 못할만큼 치명적인 위력을 갖긴 것이어서 對 시독戰은 기권을 해야했다.

#### ▲「멕시코」對 「우간다」戰

패자부활 준준결승이 되는 이 경기는 기진맥진한 「멕시코」와 「우간다」가 부딪게 되었으나, 기동조차 곤란한 「우간다」는 도저히 출진이 불가능하여 출장(出場)치 못하고 文大元 「코쉬」의 성화같은 득점으로 「멕시코」 선수가 출전, 결국대전 없이 「멕시코」가 승리했다.

#### ▲美國 東部 對 독일

패자부활전 준준결승이 되는 이 경기에서 미국 동부는 질사의 추적을 하는 시독을 완벽한기술과 체력으로 무찌르고 4대 1로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 ▲「멕시코」對 한국

「멕시코」의 「스피드」한 동작과 「하이팅」있는 파괴력은 경기중 반전에 들면서 부상자의 속출과 지구력의 결여로 한국 「팀」을 맞아 고군분투의 보람도 없이 4대 0으로 물러나야 했다.

최정도의 박력있는 공격이 작열하여 「멕시코」 최강 선수이며 이번 대회의 「히로」였던 「바시야스」·「듀에나스」 선수를 KO로 눌러 기업을 토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개인전 중량급 金正泰 선수에게서 그 활약과 공헌도가 소상히 소개되지 못하였으나 「팀」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데 최정도 선수의 활약은 높이 칭찬할만 했다. 「탱크」같이 들져하여 정확히 주먹 지르기로 「포인트」를 내내는 깡신수 특유의 기술은 믿을지스리웠다. 더욱, 최를 거듭하여도 지치지 않고 더욱 날렵해져서 그의 지구력은 평소와 같은 노력의 소산으로 믿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었다.

#### ▲美國 東部 對 自由中國戰

세기(細技)에 능한 자유중국과 체력과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동부 「팀」의 대전은 技의 대결이라고 보다는 전신(全身)을 이용한 육탄전(肉搏戰)이었다.

미식축구(美式足球)처럼 미로만 「팀」의 신수를 건원 교섭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팀」의 활력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 제출된 「엔트리」의 선수가 시종 혈전을 계속하는 태권도 경기는 힘과 기(技)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회의 경기「물」의 2분 3회전으로 결정된 후 2회만 남으면 선수가 기진맥진하는 것은 3회전 경기에 임하는 훈련의 부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미국 동부 「팀」과 중국의 경기는 기술을 머나 힘과 반칙의 대결로, 다섯차례의 대전 가운데 3개의 실격과 1개의 무승부가 있었음은 경기의 격렬함을 「스코어」로 배변할 수 있는 바다.

선수들의 기합소리와 관중의 함성 속에 경기장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고 쌍방의 반축으로 「게임」은 점점 「리프」해지고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미국 동부 「팀」의 주장 「제임스」·「버턴」이 「장판명」과 필사의 난투를 벌여 근소한 차로 승리, 행운의 결승 「티켓」을 잡았다. 그러나 만신창이의 몸으로 3회에 머문 중국 「팀」의 사력(死力)을 다한 신진은 승리보다 값진 교훈을 남겼다.

#### 5월 27일(대회 제 3일)

단체결승전의 일전을 남기고 극기원 청, 홍 양 「코너」에서 불꽃 뛰는 개인전(경량급 및 중량급) 경기가 속행했다.

개인전 선수들은 명실공히 소속 「팀」의 「에이스」 선수로서 우수한 기술의 소유자로 정선되어있고, 체중에 무관하게 대전 순위대로 대결하는 무리가 없어 같은 체급에서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 단체전에서 볼수 없는 묘기백출의 경기를 볼 수 있었다.

#### 개인전 경기(경량급 예선)

경량급 예선 1회전에서 미국중부의 「차리」 선수와 시독의 「카렌벨트」 선수는 국내 일급선수들 경기수준에 손색 없는 경기운영을 보여 주야박수를 받았으나 「차리」 선수가 여러번 넘어져실점 당하고 「카렌벨트」의 앞차기가 성공하므로써 「카렌벨트」가 2회전에 진출했다.

2회전에서 「홍콩」의 「호훈홍」과 싸운 「카렌벨트」는 신체적으로 유리한 긴 「린치」를 이용하여 「호훈홍」을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프랑스」와 「달레이저」전의 승자와 준준결승에 대전케 되었으나 그들이 모두 기권하여 일로 준결승으로 뛰어 올랐다.

「카렌벨트」선수가 이처럼 준준결승에 도달하기 위해

시는 10일간의 식이요법으로 본래의 체중에서 무려 10kg을 빼내는 초인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카렐벨그」를 인솔한 서운남 단장은 「카렐벨그」선수는 「메르틴」 최대의 내전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도장주(道場主)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개인의 명예와 도장 운영의 새 활로형성에 꿈을 실었시키려는 제칙을 「게르만」 민족 특유의 두뇌로 달성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한국, 「아이보리 코스트」, 미국 서부, 자유종, 「필리핀」 조(組) 예선전은 미국 서부의 「코울」 선수와 「아이보리 코스트」의 「보우빌베」 선수를 물리친 한국의 李基炯 선수가, 「필리핀」의 「로돌프 로페스」를 누른 자유종국의 「천봉우」와 격돌, 李基炯은 그의 특기인 열차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천봉우」를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프르테이」, 「싱가폴」, 「오스트리아」, 서독, 「크메르」의 예선에서 서독의 「샤베로」 선수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 준결승에 진출하고, 「멕시코」, 「우간다」, 미국동부, 제일교포, 「말레이지아」전(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좋은 기술과 훌륭한 「게임·메너」로 많은 박수를 받은 「조 웨이스」가 준결승에 나서므로서 경량급 개인전은 서독의 「카렐벨그」 「샤베로」 미국 동부의 「조 웨이스」 한국의 李基炯 4명의 대결로 좁혀졌다.

이때 국기원은 준결승전을 맞아 흥분한 관중의 열기에 참고 역사적인 「빅 게임」을 관람코저 찾아온관중은 영동구룡을 덮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 가운데, 국기원 수용인원 4천석은 메워 입장률 증단, 원로(遠路)를 찾아온 「팬」들을 되돌아가게 했다.

#### 중량급 예선

중량급예선은 제일동포 박경수 선수와 「홍풍」의 「인메요」가 1회전을 거뒀다.

박경수는 열차기와 주먹 지르기 「인메요」를 신속하고 신진하는 「오스트리아」의 「오베르코프러 쿠들루」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나섰다. 그러나 물러차기와 2단 열차기의 명수이며 미국 동부의 명장인 「마이크 워렌」이 「우간다」의 「오우프」를 제치고 준결승에 나서 박경수를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또한 예선에서, 독일의 「메이북크」 미국정부의 「메이몬드」, 「크메르」의 「빅트본슨」 「말레이지아」의 「무이스 넥」 조는 단체전의 불운을 설욕하려는 미국 중부 「레이몬드」의 분발로 준결승에서 「크메르」의 「빅트본슨」의 「더크」한 반칙에 유력전을 벌이면서 선전 준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싱가폴」의 「레입슨」 미국 서부의 「알버트 칙스」 「멕시코」의 「이시아라스·투에나스」 자유종국의

「로주홍」 예선전에서는 「알버트 칙스」가 「멕시코」경기에서 거진백전한 「로주홍」을 여유있게 제압, 준결승에 올랐다.

한국의 金正泰 선수가 포함된 「필리핀」의 「테오도로 바로온」 서독 「볼 콰르트」 「아이보리 코스트」의 「지리농」 「부부베이」의 「테이노르 워」 예선은 金正泰의 일방적인 우세로 준결승에 진출이 확정됐다.

이로서 중량급에서 미국정부의 「레이몬드」 미국 서부의 「알버트 칙스」 미국 동부의 「마이크 워렌」이 한국의 金正泰 선수를 위협하며 경전에 임하게 되었다.

#### ▲개인전 경량급 준결승 및 결승

한국의 李基炯은 서독의, 카렐벨그를 맞아 앞차기로 확실시 「포인트」를 내어 결승에 올랐다.

이 경기에서 「카렐벨그」는 「다이어트」의 장기시도에서 온, 무기력 현상과 합의 안배에 실패, 李基炯의 공격에 수비 일변도의 출전을 벌이고 패배했다.

이어 미국동부의 「조 웨이스」 선수와 독일의 「샤베로」 선수의 대결은 이번 대회를 통한 입권의 내걸이었다. 마치 「스모오즈」가 아닌 율동을 보는듯한 유연하고 깨끗하며 품위있는 장면이었다.

「조 웨이스」가 미국의 무도지 「블랙벨트」에 수차 소개되어 그의 실력을 미루어 짐작이 가고 있었으나 南美 「베네츄엘라」 출신이며, 「메르틴」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샤베로」의 출현은 기대밖의 수확이었다.

태권도는 해일수 없이 많은 종류의 기술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될 것이지만 이 두 선수가 활용하고 사용한 기술내용은 중중구 태권도에 어운을 남겨준 감명 깊은 것이었다.

「조 웨이스」 「샤베로」!

이들은 기술을 겨루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권도의 예의규범을 여유있게 보여줬고, 경기에 들어서서 관중을 압도하는 최선의 기력(技力)을 다하였다.

경기가 끝나고 「샤베로」 선수의 손이 울라가자 「조 웨이스」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샤베로」를 찬양하는 모용을 했다. 관중들은 이 호련한 광경에 그칠 줄 모르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최후의 일전, 경량급 결승을 남기고 선수도 관중도 「벨취」의 「코취」도 모두들 긴박한 호흡이 오고 갔다.

「게임」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전체의 눈빛으로 선제공격을 삼가했다.

李基炯의 특기인 앞차기와 열차기가 자얼하기를 고대하는 관중들은 열화같은 응원을 보낸다.

「샤베로」의 「벨취」는 「샤베로」의 물러차기와 열차기가 명중하여 주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예상외로 李基炯은 주먹치르기과 물러차기로 착실히 특점을 쌓아나가고 조심스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 기술의 발휘보다 특점위주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2회전에 접어들면서 李基炯은 빠른 속공으로 기습「사베르」를 앞차기로 쓸어 트린 후 실점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량급「캠피언·타이틀」 획득에 성공했다.

#### ▲개인전 중량급 준결승 및 결승전

미국중부의「마이클 워렌」 미국 중부의「데이몬드」 미국서부의「알버트 칙스」 그리고 한국의 金正泰 선수가 중량급의 왕과 정패전을 벌였다.

먼저 미국중부의「마이클 워렌」이 미국중부의「데이몬드」와 대결하여 판정으로 승리, 결승에 올랐고, 金正泰는 왼손의 부상으로 「탠디캡」을 갖춘채 「알버트 칙스」의 허점을 노려 효과적인 경기를 운영하여 결승에 올랐다.

이어서 벌어진 중량급 결승은 美 동부「캠피언」이라는 「마이클 워렌」과 결전을 갖었다. 金正泰 선수는 왼손이 부상으로 더욱 어려운 「탠디캡」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이클 워렌」의 연속물러차기와 위력있는 「펀치」가 작열, 한국「벤취」를 불안하게 하였으나, 金正泰는 침착한 경기운영과 사력을 다한 투지가 「마이클 워렌」의 공격을 견제했다.

金正泰는 앞차기로 「포인트」를 따내어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이클 워렌」에 위협을 받은 것은 「흙 코트」가 아닌 곳에서 경기를 감안할 때 암영(暗影)이 없지 않다.

#### ▲단체 결승전

이후 속행된 대회 최종일 마지막 경기는 25일과 26일이물동안 파란만장의 코비를 넘기고 결승을 맞은 미국 동부「팀」과 승승장구의 한국「팀」이 제 1회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왕좌를 앞에 놓고 단체전「계입」을 갖었다. 양「팀」선봉은 羅鍾烈과 「조해이스」가 나와 격돌 불을 뿜는 열전을 보였다. 「조해이스」선수는 그의 장기인 2단 옆차기 묘기를 보여주고 호시탐탐 羅 선수

의 허(處)를 노렸다. 그러나 羅鍾烈은 「조해이스」가 「점프」를 할 때 요령있게 접근하므로서 「조해이스」를 쓸어들려 곤경에 몰아 넣었다. 미국의 광활한 무대에서 벌였던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 일격 필승했던 「조해이스」의 특기도 羅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분명 羅 선수수는 두뇌 「플레이」에 능했고 「벤취」와 호흡을 맞추줄 아는 선수였다. 그러나 여러 「팀」과 대결하는 동안 피로의 기색을 보이지 않던 羅鍾烈도 「조해이스」를 맞아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고 「조해이스」도 필사의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특점 「포인트」를 재치있게 얻어낸 羅鍾烈이 승리를 걸워 결승전 서전을 장식했다. 이어 金正泰는 물러차기의 명수 「테이콜」에게 부상기권승의 행운을 잡았다.

中壘의 姜義聲은 「마이클 워렌」을 맞아 시종 열전을 벌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실점해 당하여 이번대회 한국 「팀」최초의 패배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金喆煥은 「알버트 칙스」를 호쾌한 앞차기와 물러차기 등 다양한 기법으로 압도, 「계입」의 주도권을 잡은 뒤 속공으로 밀고 나가 일격승을 노리는 「알버트 칙스」에 기뢰를 주지 않고 승리를 굳혔다.

羅鍾烈, 金正泰, 金喆煥의 승리로 한국의 단체우승이 확정된 뒤에 맞은 최정도와 「계입스 부턴」의 경기는 최정도의 여유있는 「계입」 운영으로 패배「팀」의 아픈을 덜어주는듯 보였으나 힘과 技의 축적, 그리고 패기 넘치는 「화이팅」은 우승국의 면모를 과시하는듯 했다. 이 「계입」은 누구나 崔正廉의 승리로 확실하리 만큼 崔正廉의 선전을 눈부셨으나, 판정은 「비길」으로 나왔다. 或者은 이 판정을 가쁘쳐 중중국의 「아람」이었다고 말하고, 或者은 「스모오즈」승부에 가담찮은 「센티멘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동구룡을 「메아리」친 4천여 관중의 그칠줄 모르는 박수와 환호성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도장에서 우리 「팀」의 승리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광경이었다. (星)

### 〈협회 동정〉

▼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후 李鍾佑 기술심의회 의장은 연맹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기술심의회 의장은 李南石 前부의장이, 부의장에는 裒永基 前심판분과위원장이다 자자 임명되었다.

또한 洪鍾秀 前기술심의회 부의장은 國技院 副

院長으로, 李炳路 前 國技院 사무국장은 심판분과 위원장으로 자자 轉任했다.

▼ 협회는 주「캐나다」이 경제 사범이 보낸 성금 50불과 주「스페인」최 원철 사범이 보낸 1백불을 접수 했다.

# 世界跆拳道聯盟創設!

지난 5월 28일 국기원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연맹 창립총회는 임기/4년의 초대 총재에 **金雲龍**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태방의 세계 태권도연맹 창설을 보았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우간다」 「서독」 「오스트리아」 「파테달라」 「콜롬비아」 「필리핀」 「홍콩」 「자유중국」 「멕시코」 「크메르」 미국 「아이보리」 「코스트」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브르네이」 등 17개국 35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한편 18조 3항에 달하는 연맹 규약을 심의 통과 시켰다.

총회는 또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하고 75년 제 2회 대회는 계속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총회는 「싱가포르」가 74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자유중국 대만에서 열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기로 했으며, 세계연맹의 부총재 및 사무총장과 실행위원 선임은 **金雲龍** 총재에 일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2회 세계태권도대회 유치(誘致)를 신청해온 미국 「메트로이드」 市長 「로빈·S 그립스」씨와 「미시건」주지사 「윌럼·밀리켄」씨, 「메트로이드」 상공회의소장 「다위트·헤이븐스」씨의 공동명의로된 제안을 심의 했으나 각국 대표들이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므로써, 서울 국기원에서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세계연맹의 발족은 **金雲龍**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3년전 회장취임때부터 태동되어왔다.

『태권도 본산지인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연맹본부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金雲龍** 회장 방침의 결실로 창설된 세계연맹은 창설과 더불어 국가별 지부 설치 경기규칙, 단종문제, 사범육성 등 많은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종전에 있어온 유사단체의 분식을 달끔히 씻고 획일적인 처리를 보게될 것이다.

한편 문교부는 4월 17일자로 국제태권도연맹(총재 **崔弘熙**)을 해체조직한 바 있다. 해체 이유는 단종의 남발 및 매도(賈渡)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제기구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말짱을 밟은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로, 세계태권도연맹의 발족은 시급하였고, 세계태권도 가족이 모인 태권 기단에 그 기구를완성 발족 하였음은 적절한 착안이었다.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의 임원구성을 위임받은 **金雲龍** 회장은, 7월 4일 대한체육회 9층 회의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결정된 세계태권도연맹의 부총재, 사무총장과 19개의 실행위원명단을 발표하고 75년에 열릴 제2회 세계태권도대회에 앞서 74년 5월에 국기원에서 제 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여는 한편 73년 제8회 아세아경기대회에 태권도를 단일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 「스포츠」의 태권도 발전에 기술의 개발연구가 병행되기 위하여 태권도대학 설립을 서두르고, 세계태권도대회에 서우승한 한국선수단 9명을 오는 10월에 동남아에 파견, 순회경기를 갖고 세계심판강습회도 열어 태권도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 ◇ 세 계 태 권 도 연 맹 임 원

총 재	<b>金雲龍</b>	(韓) 「大韓跆拳道協會長」
부 총 재	물렌드 더달코	(美) 「韓美財團總裁」
	레오 바그너	(獨) 「下院議員」
	金 明會	(韓) 「國會議員」
實行委員	존M 머피	(美) 「下院議員」
	맥스 하인즈	(獨) 「태권도 협회장」
	도메스 나바메데	(멕시코) 「태권도협회장」
	朴 健碩	(韓) 「汎洋專用船社長」
	나자무딘	(말聯) 「陸軍參謀總長」

J A A 에티마	(우간다) 「刑務官學校長」
蔣 緯國	(自由中國) 「三軍大學 副總長」
L 마코스브	(佛) 「國稅廳長」
시하스 우스칸	(터키) 「태권도협회장」
朴 武昇	(韓)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嚴 雲奎	(韓)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李 南石	(韓) 「태권도협회 기술심의의장」
洪 鍾秀	(韓) 「국기원부원장」
랑 치현	(싱가포르) 「체육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李 鍾佑 (韓) 「教育院院長」

#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 **Established on May 28, 1973**

### **Heralding New Era for**

## **Tae Kwon Do as a True World Sport**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the Inaugural Meeting held on May 28, 1973 at Kuk-Ki-Won (Tae Kwon Do Center), Seoul, Korea.

The Inaugural Meeting also elected President Un Yong Kim of th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to the presidency of the Federation.

The Meeting was participated in by 35 representatives of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France, Uganda, Austria, Guatemala, Columbia, the Philippines, Hong Kong, Free China, Mexico, Khm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vory Coast, Malaysia, Singapore, and Brunei.

The Meeting also deliberated and passed the draft of eighteen-articles and three-provision lo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Among resolutions passed at the Meeting are the holding of the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every two years and the entrusting President Un Yong Kim with the authority to select and appoint officials of the Federation including vice-presidents, secretary-general, and executive members.

Accordingly, the Second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is slated to be held in 1975 in Seoul, Korea.

There was an offer from Mayor Roman S. Gribbs of Detroit, U.S.A., Governor William Milliken of Michigan, and Chairman Dwight Havens of Detroit Chamber of Commerce to invite the Second World Championships over to Detroit.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ting representatives of the Meeting preferred Seoul as the site of the next World Tae Kwon Do Tournament.

There was also a move to hold the Asia-Zone Tae Kwon Do Championships in Taiwan in 1974.

But it was resolved that the decision of the matter be left up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ae Kwon Do organization has been one of the many dreams and desires cherished by President Un Yong Kim, ever since he took office of the presidency of th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three years ago.

He has always emphasized on the need of the world Tae Kwon Do body to effectively develop and propagate Tae Kwon Do over the world.

And when he first proposed an international Tae Kwon Do organization at the opening of the First World Tae Kwon Do, he made it clear that such an organization would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international friendship in many ways.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is believed to play a vital role in providing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opening of new era of Tae Kwon Do on a world-wide scale with the traditional Korean Tae Kwon Do spirit as its fulcrum, as he emphasized.

Introducing a universal grading system of Tae Kwon Do, stream-lining the international match rules and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martial-art-turned-sport are the major tasks the Federation is expected to tackle with.

The birth of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facilitated the elimination of the anarchistic practices that have plagued the world of Tae Kwon Do.

One of the instances was the recent abolition and cancellation of the so-called "International Tae Kwon Do Feder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so-called ITF has been blamed for incurring notoriety to the world of Tae Kwon Do by turning out to be a personal organization of a few Korean individuals who made the business of peddling Tae Kwon Do martial arts.

President Un Yong Kim made public some of his Tae Kwon Do projects at his first press conference held on July 4, 1973 at the grand auditorium of the Korean Amateurs Sports Association building.

Among the blue-prints he made public are the holding of the First Asian Championship at Kuk

Ki-Won, Seoul, Korea in 1974, and the Second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in 1975 at the same site. He also disclosed that he would dispatch the officials and competitors of the winning Korean team of the Championships on the global tour to have exhibitions and exchange games with the world Tae Kwon Do nations, and sponsoring of the refresher course for international Tae Kwon Do instructors to help launch Tae Kwon Do as a true world s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Tae Kwon Do College to further research on, and development of, Tae Kwon Do.

The officials of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as he selected and appointed are as follows.

### The List of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Position)»	«(Name)»	«(Profession)»	«(Nationality)»
President	<b>Un Yong Kim</b>	President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Vice Presidents	Roland De Marco	President American-Korea Foundation	U.S.A
"	Leo Wagner	Member of Parliament	Germany
"	Myung Hoe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Secretary- General	Chong Woo Lee	Director, Academy of Education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Executive Members	John M. Murphy	Member of U.S. Congress	U.S.A
"	Marx Heinz	President, German Tae Kwon Do Association	Germany
"	Manuel Mondragon	President, Mexican Tae Kwon Do Association	Mexico
"	Y. Kalb	President, Pan-Pacific Corporation	Korea
"	Kum Suk Park	General, Chief of General Staff	Malaysia
"	General Ungku Nazaruddin	Director, Tax Government	France
"	L. Lacoste	President, Turkish Tae Kwon Do Association	Turkey
"	Cihat Uskan	Vice President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	Moo Seung Park	Secretary- General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Korea
"	Un Kyu Um	Chairman, Council of Techniques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do
"	Nam Suk Le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Assistant Head-Master, Kuk-Ki-Won	do
"	Chong Soo Hong	Secretary-General, Sports Promotion Board	Singapore
"	Tang Chee Yuen	Dean, Prison's Staff College	Uganda
"	J.A.A. Etima	Vice President, Armed Forces College	China
"	W.K. Chiang		

# 제 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總評



日刊「스포츠」체육부차장

李 台 永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국제경기를 가져왔고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지난번 제1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탁구나 배슬링의 세계체제와 또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다. 태권도의 세계대회를 우리땅에서 열고 한국이 이 대회를 휩쓸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울것이 없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지만 이대회의 의미와 가치는 이제까지의 일반경기대회와 다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所得은 다른 경기대회와는 건줄수 없는, 커다란 것이었다.

도시 세계를 우리의 나래안에 품을수 있다고 자부할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일부분에서나 마 우리의 것이 세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슬기와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긍지를 느끼게 된다. 피부와 언어와 종교를 달리하는 여러인종이 우리손으로 지은 도장에서 우리말 용어로 우리고유 무술의 경기를 벌이는 모습을 보는동안 누구나 커다란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優劣勝敗가 증한것은 아니다. 승리의 가치를 따진다 면 이보다 몇곱절 큰것들이 많았다. 이것을 하나의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호화로운것들이 또한 많았다. 우리가 이 대회를 주목한것은 새역사의 章을 열었다는점 때문인 것이다. 세계「스포츠」로서의 이미지定立 그리고 세계연맹의 조직이 바로 이대회의 중대성과따 고 말하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경기화에 의의를 표시해왔다. 태권도는 무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를 경기화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것이 道인 術이건 정실수양에 의한 심신단련에 목적이 있었던것만은 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스포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태권도인 스스로가 「스포츠」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반신반의 해온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가 護身術로서 서양인들의 인기를 모아 급「템포」로 보급, 전파된 사실이다. 戰鬪力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스포츠」적인 요소가 적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 훌륭한 경기대회로서 성공을 거둬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스포츠」로 발전시키는 중요계기를 만드는 한편 태권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한 것이다. 일본의 무도라고 할수 있는 유도가 벌써 세계「스포츠」로 인정되어 東京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핀렌·올림픽」공식종목에 채택되었고 스웨덴의 「삼보」가 또한 국제기구를 갖고있다. 이러한점을 감안할때 태권도도 앞으로 경기 심판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여 이론을 체계화하고 경기를 과학화한다면 국제공인의 「스포츠」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이 대회를 계기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연맹을 결성하고 조직을 강화, 장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보류 추진키로 했다고 하므로 이러한 노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세계태권도운동의 조직화, 그리고 그 始發은 이 대회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다. 이제까지 많은 한국사범이 세계각지에 진출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 보급운동은 多元의이고 매우 散漫한것이어서 劃

一的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파벌의식의 殘棼가 남아 사법들사이에 不協과 齟齬를 나타내고 이혼의 불일마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내의 파벌적인 요소들은 깨끗이 제거되어 앞으로 혼신이 없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해외 사법들의 경우 離我獨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의 일인화를 기하기란 결코 용이한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태권도연맹이 결성됨으로써 세계지역을 하나로 이룰수 있는 조직을 갖게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다. 이 조직이 목표향대로 효력을 나타낼된다면, 또한 세계지역을 이조직, 이체제속에 끌어들여 명실상부한 本領의 구실을 하게된다면 이것은 대성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서 세계태권도연맹을 끌고갈 한국태권도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金鎗제를 비롯한 연맹임원진의 추진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무쪼록 萬難속에서 괴워놓은 執念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제1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일부의 우려를 일소하고 성공을 거두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또한 제2단계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대회를 통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대회를 試行이라고 할때면 비록 적은것일지라도 어떤 錯誤는 없어야 하며 첫 출발과정서부터 완전무결을 바랄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하나의 값진 敎訓으로서 또는 宿題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태권도 「스타일」의 통일문제. 태권도는 과거 시범으로 그쳐왔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국가(예 美國 西獨)는 시범을 위한 기술을 위주로하여 한국의 경기기술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歐美선수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기술을 구사했으나 막상 경기에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들의 기술은 한국의 특점위주의 단조로운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스타일」부터 달라서 경기에서만이라도 「스타일」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국「스타일」이 이상적이라고만 할수는 없다. 기술상의 수준이나 가치로보아서는 오히려 歐美선수들이 앞서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대회인만큼 歐美선수들은 「스타일」의 차, 護具의 불편, 경기운영의 미숙등을 느꼈을것이 틀림없다. 西獨 선수의 경우 호구착용경기가 처음이었다니까 불리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만일 西獨이나 美國선수들이 한국의 경기물과 운영규정에 바로 따를수 있다고 치면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할것이 틀림없다.

둘째로 체급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대회는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양인과

리의 대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을 견줄때 체력적인 조건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한예로써 미국서부의 「캐럴터·애드너」같은 선수는 같은 중량급이라해도 「싱가포르」선수보다 10kg 이상의 차가있어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東西의 겹을 해소하려면 유도처럼 5체급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급문제에서 또한 가지 지적할 것은 치밀한 준비가 없어 대회전날 제한체중을 조절하는등 「트리플」을 빚었던 점이다.

셋째로 반칙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것. 태권도가 태에 따라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기이므로 정식훈련을 중시하고 반칙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주먹으로 안면을 치는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파울」이 있어도 주먹로 끝난다면 감정을 준다면 반칙으로인한 부상의 「데미지」를 감안치 않는다면 분명히 불합리한것이다. 이 대회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西獨의 「볼프르트」가 미국선수의 반칙공격에 안면을 정면으로 얻어맞아 크게 부상당했는데 관중결과서는 미국선수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것은 규칙적용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하나의 본보기이다.

넷째로 기술권 면에서 태권도는 베슬링이나 복싱과 혼동될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점, 「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한국은 한국대로 특점위주의 작전으로 발기술보다는 손기술을 더많이 썼다. 이러한 손기술에 의한 특점위주 작전은 자칫하면 태권도의 매력을 반감시킬수도 있다. 태권도가 일본 「가라테」보다 나은점이 발기술에 있다고 할다면 이 감정을 좀더 살려서 복싱이나 베슬링과 다른 어떤 특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이 대회가 국가단위로 조직되어야한다는 원칙문제에 대해 한마디 붙여 두고자 한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친선경기가 아닌이상 국제경기의 관례에 따라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뿐만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성격은 띄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단일 「팀」의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첫대회라는 점에서 자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다보니 미국은 3개 「팀」으로 나뉘어 출전하고 西獨과 별도로 西베르린이 등장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와 다른 「사바」가 따로 참가신청, 혼신을 빚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시경, 조정되었으나 앞으로 대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연구해 볼 문제이다.

이상으로 이 대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漢陽大體育大學長 유 근 석

앞號에 말한, 體力은 物理學의 原理에 맞게 使用한 것은 跆拳道 技術의 科學化를 爲하여 重要한 일이나, 體力을 造成한다는 問題도 또한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人間이 外力에 依하지 않은, 어떠한 身體作業을 할 때는, 內的 器官에서 發生되는 힘(에너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힘을 어떻게 많이 얻고, 어떻게 經濟的이고, 能率의으로 使用하느냐 하는 것이 運動競技에서는 더욱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競技力=體力×技術이라는 點에서 技術을 뒷받침할 體力을 造成한다는 것이 要求되므로 方法은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겠다.

體力이란 단순히 <힘>이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기 쉬우나, <힘>이 무엇이나고 따지고 뒤보면 그렇게 쉽게 解明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면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고, 跆拳道에서 벽돌 10장을 단숨에 격파했다면 이 또한 힘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비 한센을 지고 10里 길을 걸게 한다면 반듯이 그 뜻을 성공시키리라고 斷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農夫)은 무거운 것을 力道運手 같이 들지도 못하고, 跆拳道 選手같이 擊破는 못한다 할지라도,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데는 그들보다 나은 點이 있을 수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이 境遇 누가 힘이 세다고 하기로 할지 極히 어려운 일이다.

또 다른 例로 힘이 壯士라 칭소 같은 力量을 지닌 사람이라 해도, 病에 弱한 사람이 있고, 別로 힘이 없어도, 病에 強한 사람이 있으니, 體力이란 그리 쉽게 풀이 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學者들은 體力을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이것이 體力이란 뜻이니, 이것이 體力에 꼭 맞는 말이니 하고, 오래동안 다루어 온 것이다.

日本의 著名한 生理學者인 이가이(齋藤)는 體力을 三次元으로 展開하고, 그 要素로서 힘(muscle strength)과 時間, 힘과 速度, 速度와 時間을 提示하고 있다. 即 이것은 持久力, 파워·筋力을 그 要素로 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库里頓(Cureton, T.K.)博士는 筋力·持久力·敏捷性·柔軟性·파워·平衡性 따위를 綜合한 能力을 體力이라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學者들의 많은 解釋이 있으나, 이것들을 모두 풀이하면 「外界의 스트레스(stress)에 對하여 이것을 克服할 수 있는 內的防禦能力과 外界에 積極的으로 活動하는 行動能力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身體의 面만이 아니라, 精神의 面에서도 크게 影響을 주는 階에 體力은 이 兩面을 비리에 두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身體의 面에서, 防禦力과 行動力이 있게 되고, 精神의 面에도 防禦力과 行動力이 隨伴되게 마련이다. 이것을 圖表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이제 여기서는 于先, 身體의 面的 體力를 다루고, 精神的 面은 잠깐 뒤로 미루기로 한다.

體力에 있어 身體의 面만을 跆拳道에 비추어 생각할 때 跆拳道競技의 身體的 體力 要素는 筋力, 敏捷性, 靱性, 柔軟性 및 平衡性이 重要한 位置를 點하고, 다음으로 持久性이 要求된다. 따라서 跆拳道競技의 能力을 向上시키려면 위에 말한 體力 要素의 그 어느 하나라도 疎忽히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테면, 사람의 구조가 自動車 같아서, 어느 附屬品이나, 部分器이 不備에서는 自動車 自體가 가지는 全能力을 發揮할 수 없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筋力이 있어도 敏捷性이 缺如되면 그 筋力이 充分히 쓰여지지 못하며, 筋力이 있어도, 힘의 調整이 그릇되면 이 또한 圓滿한 競技 運轉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故로, 어떠한 競技나 그러한 基礎 體力를 고루 準備하는 것은 自動車를 整備하는 것과 같은 理致로서, 이것을 無視하고 제 아무리 다른 것을 익히야 別 效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앞서도 말한 것 같이 [競技力=體力×技術]이므로, <體力>과 <技術>이란 이 두 要素를 充分히 다스려야 競技力이 向上될 것이다. 흔히 道場이나, 巷間에서 跆拳道를 修道하는 사람들이 技術에만 專念하고 있는 傾向이 있음을 보는데, 이것은 運轉技術이 運轉技術은 充分하여도, 自動車 自體의 整備가 不足하다는 1等技士로서의 能力을 發揮하기란 어려운 것과 같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여기에 다급하진대, 于先 體力強化, 다음으로 技術이란 順序로 修練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 1. 筋力 強化 方法의 概要

이를테면 筋力을 強化한다고 할 때 筋肉에 一定以上(1/3 最大筋力)의 負荷로 刺戟은 주어야, 비로써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平素살아 가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힘은 普遍的으로 最大筋力(最大로 가지고 있는 힘)의 25~30%이라고 하니까, 平素에 쓰여지는 힘보다는 더 힘이 드는 筋肉運動을 시킴으로써 筋力을 向上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普通 作用하는 以上の 힘을 쓰게 하려는 筋肉을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가 끊어진다라는 것이며, 이로써 근육의 부피가 늘게 되고, 근의 부피가 커지면, 이에 比例해서 筋力이 增加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알통>을 크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筋力을 增強하는 方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결박기의 알통 만으로는 筋力이 充分하게 強化되는 것이 아니고 알통이 생겼다 하더라도, 繼續 40日 以上 訓練을 해야

알통 힘이 비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肉體美 選手들은 筋肉이 좋으나, 別로 力道選手에 비해서 힘을 못쓰는 것은 이와 같은 理由에서라고 判斷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筋肉의 부피가 增加되는 理由는, 筋肉을 構成하고 있는 섬유가 大體로 고르지 않고, 굵고 가는 것이 엇섞여져 있는데, 訓練을 하려는 가는 섬유가 끊어져서 전체의 부피가 커진다고 믿고 있다. 또 訓練을 하려는 근섬유를 支配하는 運動神經의 作用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筋力을 크게 낼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強한 筋力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訓練을 中斷하면 時日이 갈수록 弱화되고 마는 것이므로, 이러한 訓練은 競技生活을 繼續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定期預金한 것처럼 一定한 程度의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安心하고 있으면, 어느새 감퇴되고 마는 것이다, 흡사 머슴은 물간이 蒸發되어 없어지지 않게 恒常 補給되어야 한다. 이러한 理致에서 적어도 週 2~3回의 繼續된 訓練이 絶對的으로 要求된다. 이와같은 筋力 訓練은 每日의 競技 練習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常例이다.

## 2. 筋力 訓練 方法의 3條件

筋力을 強化하는 데는 세 가지 點을 버리에 두고 해야 한다(勿論 이 3가지 點은 筋力 訓練에 限한 것이 아니고, 모든 訓練에서 必要로 하는 條件이다). 첫째<強度>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느 程度의 힘을 쓰게끔, 負荷나 抵抗을 주는 것이 效果的이나 하는 問題이다. 卽 最大筋力의 1/3, 2/2, 2/3, 或은 3/3中에 어떠한 것을 揀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負荷나 抵抗에 對하여 어느 程度의 時間만큼 筋肉은 峙야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예를 들면, 100kg을 들이 옮겨야 하는 사람이 100kg을 들고, 어느 程度 있으면 效果的하야 하는 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時間의 條件>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 訓練을 每日每日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週에 한 番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考慮되어야 한다. 이것을 <頻度>라고 하며, 이 頻度에 따라서 訓練 效果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筋力 訓練에는 <強度> <時間> <頻度>라는 3가지 條件을 考慮하고, 그에 第一 合當한 方法을 생각해 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다음 號에는 筋力強化를 위한 <強度> <時間> <頻度>의 適正線에 對하여 論議하기로 하겠다.

# 이조의 태권



## 李朝태권의 歷史의 背景

근세에 세워진 통일왕조 이조는, 위화도(威化島)의 퇴군(退軍)에서 단숨에 정계의 실권자(實權者)가 된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고려왕조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데서 비롯된다.

1392년 7월 17일 개경(開京—開城)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자 국호도 그대로 고려(高麗)라 하였으나 뒤에 곧 조선(朝鮮)이라 고치고 민심을 새롭히기 위하여 서울을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옮겼다.

태조는 고려백의 큰 폐단이 되었던 불교 대신에 유교를 장려하고 이를 정치,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으니 불교는 쇠퇴하고 유교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명(明)에 대해서는 사대정책(事大政策)을 써서 사신의 내왕을 잦게 하고, 조공(朝貢)·회사(回賜) 형식와 교역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후대에 까지 오래 계속 되었다.

명의 지원을 받은 이조의 국운은 날로 독자적인 변

## 이 석 호

영을 가져오고 파단성 있는 정무(政務)의 지리로서 왕권이 굳건해져 갔다.

이여 세종(世宗)에 의한 완단한 민족문화의 형성과 세조, 성종의 눈부신 치적(治績)으로 문물(文物)이 완성되고 나라의 기틀이 잡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왕성한 건국초의 융성한 기운은 제도의 결함으로 문란해져서 훈구제상(勳舊宰相)과 신진사류(新進士類)간의 사화(士禍)와 참구(慘劇)를 빚어 냈다. 이로 인하여 당쟁(黨爭)의 원인이 조장되고 사회자체의 모순과 분열대립이 겹쳐져 임진정유의 왜란을 7년에 걸쳐 격어야 했고 2번의 호란(胡亂—丁卯·丙子)을 치르게 되었다.

때문에 국운은 황폐하고 제정은 고갈되어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강요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참담한 사회현실에 자극되고, 청(淸)나라를 통하여 들어온 고증학(考證學) 및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실제로 사회에 이로울 수 있는 실학(實學)이 태두되어 많은 학자와 저서가 쏟아져 나왔으나 문비무약(文肥武弱)의 결과를 가져 왔을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또한 이때에 전래(傳來)된 천주교(天主教)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였고 홍국영(洪國榮) 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등에 의한 세도정치(勢道政治)는 삼정(三政)의 문란을 자아내고 전국 농촌 각지 농민이 반발을 자아냈다.

순조 때의 홍 경래(洪景來)의 난, 철종때의 진주민란(晉州民亂)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후 고종의 생부(生父)가 되는 대원군(大院君)의 과감한 내정개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집하다 병인·신미(丙寅·辛未)의 양요(洋擾)를 야기시켜 서양함대의 공격을 받는다.

다시 민씨(閔氏) 일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윤양호(雲揚號) 사건으로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치 않을 수 없었고, 일본과 청(淸)나라에 내정과 제도의 해신을 꾀하는 문물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개방된 문호에 필승하여 쫓아드는 외세로 주체성의 결여를 빚고 외세에 의존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야 말았다.

1897년에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호를 바꾸고 국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한편 기용어지기 시작한 국운은 영영 소생치 못하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이 체결되면서 5백년 왕국은 끝을 맺고 말았다.

## 李朝의 태권

유사(有史) 이전으로부터 존재해 왔다고 보는 한국의 태권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를 거치는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정점(頂點)에 올랐던 태권은 모든 한국의 문화유산이 그러하듯 이조에서 정리되고 인연히 오늘에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국 체육고전(體育古典)의 최고봉(最高峰)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그녀의 그들세들을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다.

이조 제22대 정조대왕 14년(서기 1790년)에 왕의 명을 받아 이 덕무(李德懋)는 태권의 품세를 만나할 저술에 착수, 이조가 세체에 계명을 보인 인쇄술을 동원하고 산뜻한 도해(圖解)를 삽입하여 군(軍)과 민(民)에 그 비법(秘法)을 전했다. 해서 백성에게 대중화되고 무예로서 뿐만 아니고 일반 「스포츠」로서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런것은 건라도와 충정도의 경계점이 되는 작지(鶴旨) 마을에서 양도(兩道) 사람들이 수박피로서 겨뤘다는 사실과, 병조에서는 수박피로서 인재를 뽑았다는 태종실록(太宗實錄) 卷 19 庚寅正月戊子의 기록이 이 시대의 태권 성행도(盛行度)를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갑사(甲士)를 뽑고 의흥부 무사를 모아 흥인문(興仁門) 안에서 기사(騎射)·보사(步射)로서 갑사를 증속 시켰다. 이에 뽑히지 못한 자는 3군의 부병(府兵) 주보(走步)를 삼고 수박피로 3인 이상을 이긴자는 모두 합쳐 시켰다. (太宗實錄 卷 22 11年 辛卯6年己亥)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군사로 하여금 수박피를 하도록 하고 구경했다. (太宗實錄 卷 32 16年 7月庚寅)』

시위군사에게 수박피를 시키고 상을 주되 차등이 있었다(端宗實錄 卷 14 3年 6月 癸巳)

“담양(潭陽) 향리(鄕吏) 관노(官奴) 등이 극가에서 수박피로서 시험을 본다는 소문을 듣고 여럿이 모여 수박피 경기를 벌였다”(世宗實錄 卷 9 3年 9月 壬丑)

“어함종(魚咸從)은 어릴때부터 기운이 장사였다. 그는 날마다 수박피를 행하는 것을 일 삼았다”(大東野乘 情實業話 卷 6 魚咸從)

또한 실전에서 태권이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이조 태권의 위치는 굳어진다.

“일진왜란때 금산(鎭山)에 왜병이 쳐들어오니 우리의 7백 의병은 무기가 떨어져 백병전(白兵戰)으로 돌격하여 태권으로 맞섰다. 이 싸움에서 의병장(義兵將) 초헌(趙憲)도 죽고 영주(靈主)도 싸움터에서 죽었다. (奇齋雜記 卷 7 壬辰日錄 3)

이밖에도 더 많은 자료가 있었겠으나 산실유망(散失流亡)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한편 이조의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살펴보면, 관리로 등용되는 것을 수세의 「삼불」로 여기던 때에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잡과(雜科) 가운데 문과가 유리. 생은 신분상의 제한을 심히 하였으며 무과는 천하(權人)만 아니면 누구도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했던것은, 평민이 있어서 출세의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체높은 명문의 자제들은 태권을 외면하고 특수기관의 무관 및 향리(鄕吏)의 일반서민 가운데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태권의 명맥을 유지하였음은 실로 예석한 일이다.

고구려의 근진한 기삼과 신라 백제의 강인성 그리고 고려의 근질근린 민속혼은 태권의 융성과 함께 그들의 조국을 지키고 수호 하였으나 문준사상(文尊思想)에 젖어 있던 이조는 스스로 해산해져 말려버렸다.

더욱, 日本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쓰라린 예속의 역사를 남긴 것은 태권 2千年史에 오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 태권도는 국기(國技)로서 그 기록을 갖추었으니, 조국(祖國)의 번영과 함께 기리 번영 하리라.

# 세계로 뻗어가는

## 中國「팀」 귀국후 敎部昨頒獎章 수여

제1회 세계태권도대회에서 단채진 3위 입상국인 자유중국「팀」은 귀국후 敎育部로부터 敎部昨頒獎章을 수여 받았다.

또한, 선수들은 참모총장 賴名湯 上將을 경건하고 武勳을 크게 치하 받았다.

이와같은 대대적인 환영은 대회에 출전한 12명의 선수 전원이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본전(奮戰)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國家의 명예를 높인 공적에 기인한다.

한편, 자유중국「팀」의 盧孝永「코취」는 이 소식을 협회에 알리고 서신을 통하여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고국에 머무는 동안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협회일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 「아이보리 코스트」政府 태권도를 體育省산하 協會로 正式認可

6년전부터 「아이보리·코스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해온 金 永泰사범은 현지 정부로부터 태권도물體育省 산하 정식협회로 認可를 받는데 성공하고 그 소식을 본 협회에 알리왔다.

—前略—

7월 6일 태권도협회가 정식인가 되었습니다.

體育長官과 內務長官이 證書頒에 서명하여 책육성산하 정식 협회로 발족을 한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이제서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재 명예회장에는 이곳 국회의장이 내정되어 있으므로 큰 발전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협회 임원들도 쟁쟁한 유력인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장인 Colonel Oussenan Kone씨는 현병총사

병관으로, 이나라 군대서열로 세번째가는 실력자입니다. —中略—

본 협회에서 자축 「리셉션」을 갖일 예정이며 한국대사관에서도 축하 「리셉션」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보고는 8월 20일頃に 귀국하여 드리겠습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옵고

「아이보리」에서 金永泰 올림

「아이보리코스트」태권도협회 임원명단

회장 Colonel Oussenan Kone(현병총사명관)

제 1부회장 Kanga michel(사회학박사)

제 2부회장 Kebe Memel(아이보리국립대학교수)

사무총장 Djibill(현병대위)

제 부담당 Karim Traore(축산차관)

Gnagne Adolphe(국영전속회사경리국장)

N,DHATZ Anoma(국영전속회사부사장)

# 한국의 태권도

權正男 李英一 사범 渡美

「시카고」市 태권도 시범과 「세미나」참석



주한 외국인 수련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온 權正男 사범과 李英一 사범이 7월 28일 현지로 떠났다.

이들은 국내에서 「아카데미」道場을 68년 이래로 개장하고, 매일 4백명 이상의 수련생을 동원하여 태권도 발

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리고 71년부터 운영한 한강「펜션」도장과 UN「빌리지」도장은 주한 외국인을 위한 도장으로, 1천여명의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했다.

權 사범과 李 사범은 지난 20년 동안을 함께 수련하고 함께 사범 활동을 해온 동갑 33세에 「베터런」태권도인이다.

이들 사범은 오랫동안 해외진출을 계획하여, 언어

의 장벽을 허물고져 외국인의 사범이 되어 왔다.

「시카고」에서 있을 태권도 시범과 태권도「세미나」에 참가할 후 국내의 정황을 살펴 본격적인 태권도 보급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이들 사범은 떠나기에 앞서 金雲龍

회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태권도「메카」의 사범다운 몸가짐으로 국위를 선양 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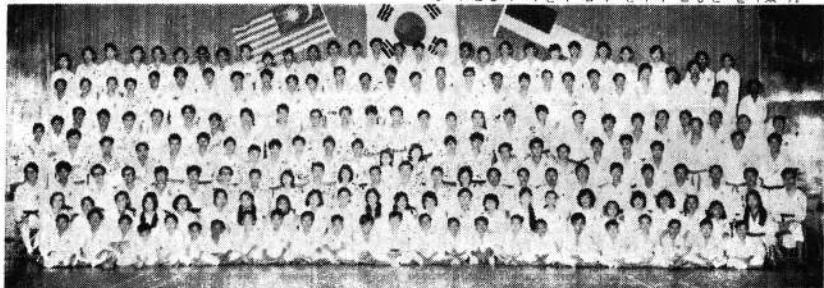
한편 태권도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출국하게 되어 자량과 긍지를 갖고 간다」고 말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결성으로 해외사범들은 보다 단합된 힘으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東南亞 최고의 태권도수련장 「말레이저어」

현재 3만여명에 달하는 태권도수련생이 있는 「말레이저어」는 양 우엽(楊雨業) 사범이 주축이 되어 날로 태권도 勢를 넓히고 있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신수권대회에 「말레이저어」팀의 「코리」로 來歸한바 있는 楊 사범은 도장 수련생의 사진과 함께 현지의 근황을 알려왔다.



Sabah Taekwon-Do Association (Headquarters) Sandakan Malaysia.  
19th December 1972  
Photo By A. L. Lee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南美에 태권 한국심은 朴源珍사범 死亡



1970년 「엘살바돌」태권도협회 초청으로 현지에서 활약하던 朴源珍사범이 지난 5월 13일 운화(輪禍)로 사망했다. 이 사고는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워 차가 증상을 잃고 전복, 불의의 참변을 당한 것이다.

故 朴源珍 사범은 「엘살바돌」에 정착한 이래 19명의 태권도 유단자를 배출시킨 이외에도 이 나라 여러 「스포츠오츠」단체에 돈독(敦篤)한 우의를 맺고 「엘살바돌」체육발전회에 크게 기여한바있어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요인의 애도전문이 담지했다.

현지 유지들과 결 태권도인들은 故 朴源珍사범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기념비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멀리 한국에서 와서 「엘살바돌」에 태권도를 심은 朴사범은 순공선열(勳公先烈)로 모시고 운동하기전에 기도를 올리고 시작하기로 체육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현재 「엘살바돌」에는 육군사관학교와 보안대, 경찰학교, 군부의 장교들이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으며 2천여명의 민간태권도인이 있다.

## 「과테말라」에 태권도 심은

## 金溶惠사범 12년만에 귀국

1962년 6월 「과테말라」國立大學 국비장학생으로 한국을 떠났던 金溶惠사범이 12년만인 지난 5월 귀국하여 1개월간의 모국방문 일정을 끝내고 원지로 귀일했다.

金사범은 한국에서 4년간 수련한 태권도를 취미삼아 한 두명의 현지인에게 지도한 것이 크게 인기를 얻어 1968년 3월 1일부터 個人道場을 개설하고 약 3천명의 태권도인을 양성하므로써 「과테말라」 전국에 「불」을 일으켰다.

本國과 인(遠)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태권도의 발전상을 상세히 알수 없었다고 말하는 金사범은 「너무나 달라진 조국의 모습이 놀라움과 제1회세계태권도선수

권대회를 참관하니 꿈만 같다」고 했다.

또한 세계태권도대회에 이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은 세계의 태권도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든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해외사범들의 동태파악을 세밀히 하여 합심발전 할수 있도록 사령탑의 역할을 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 현지 수련생이 3천명에 달하지만 유단자는 단 1명에 그치는 것은 태권도의 기술보다 무도인으로서 인격을 증시하여 계한한 조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유단자의 배출은 엄격히 제한하여 태권도의 품위를 높여겠다고 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趙時學師範 歸國

### 태권도로 「뉴욕」市立大學 교수되고

美國태권도 보급발전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趙時學(美國名 헨리·조) 사범이 지난 7월 15일 내한하였다.

15년전 「일리노이」대학원 유학생으로 도미하여 경영학碩士과정을 끝낸 趙사범은 1961년 「뉴욕」에 도장을 개설했다.

이때로부터 12년이 경과한 현재는 미국 여러 洲에 그의 제자들에 의한 많은 지부가 생기고 70여명의 유단자(최고 2단)와 約2천명의 수련생이 趙사범의 도장을 거쳐 나왔다.

趙사범의 활약은 현재는 물론 한국정부로부터 해외 유공교포로 인정을 받아 1970년 광복절에 한국으로 초빙되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美國 무도권위誌 「브릭·벨트」誌는 趙사범을 1971년의 우수무도인으로 선출하여 태권도인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그후 「뉴욕」교민들은 趙사범을 교민회 회장으로 추대하여 종교인이나 경제인이 아닌 유일한 태권도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6개 대학에 태권도 강사로 출강하여 태권도를 지도해온 趙사범은, 理論과 實際를 탁월한 필치로 엮은 3권의 태권도 著書를 내 놓은바 있어 「뉴욕」市立大學에서 순수한 태권도인의 자격으로 교수자격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여, 금년 9월학기부터 출강하게 되었다.

趙時學사범은 來韓하여 살피본 모국의 태권도 발전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金 雲龍회장의 업적에 경외를 표할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시킨 일과 세계연맹의 결성등 크고 힘든 사안이 이루어졌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므로



—趙時學 사범—

국내보다 해외에 널리 알려져 해외사범들이 자발적인 사명감에 입각해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것」이라 했다.

특히 金 雲龍회장의 태권도사업지상목표가 될, 「올림픽」에 태권도종목 가입의 가능성은 유도인구보다 태권도 인구가 훨씬 많아진 오늘날의 현실로 보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에 주력하는 金 雲龍회장의 뜻을 받들어 해외사범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있어 「가라테」가 AAU에 가입되어 있고 호시탐탐 「올림픽」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태권도가 AAU이 「가라테」와 함께 등록되는것은 한국고유의 전통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피력했다고 건하고, 태권도가 「가라테」보다 월등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 추세로 보아 태권도를 세계인에게 보다 새롭게 인식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했다"고 했다.

끝으로 세계연맹창설에 대해 "산재한 세계태권도를 태권도종주국인 한국에서 주관하여 연맹을 결성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태권도를 통해 민족의 긍지를 느끼게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피력하고, 조속한 기간에 각국의 대표단이 자리를 같이하여 「물」의 통일을 작성하고 일단 합의된 「물」은 태권도를 배우는 모든 국가간에 공동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뉴욕」에서 있을 8·15 광복경축행사준비로 10일 간의 짧은 체한 일정을 끝낸 趙사범은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 때의 상봉을 기약하고 8월 11일 출국했다.



## 宗主國태권도를 爲한 小見

(TBC 체육記者)

金 英 一

지난 6월 1일부터 나흘동안 대전공설운동장 보문원 주 특설경기장에서 거행된 「스포오츠」소년대회 태권도 종목에서 전라북도도 또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북도는 16개 다른 종목에서는 부진했으나 유독 태권도에서 타도(他道)의 추종을 불허하는 총점 9백28점을 획득, 昨年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견운것은 이들 나름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며 우승을 차지하기까지의 훈련과정이 고무적이고 다른 경기인에게도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본인은 태권도에 문외한 이면서 감히 출필을 물어 1백60만 태권도인에게 「스포오츠」소년대회 태권도 부문을 소개하는 것도, 모든 「스포오츠」인에 산 교훈을 주고 종주국 태권도에 자국을 줄수있는 좋은 소재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 8명의 선수를 출진시킨 전라북도는 8체급 가운데, 최경량급인 「핀」급을 비롯해 6체급에 걸쳐 6명의 선수가 준결승전에 진출, 종합우승을 굳혔으며 다시 5명이 결승전까지 올라가 「타이트」급의 황 의용과 안석만이 금「뻬지」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런 훌륭한 성적을 견우는데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했는지 어떠한 훈련과정이 주요 했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의의 있는일이 될 것이다.

정확히 3집9만3천6백6명의 태권도인이 1백21개의 도장에서 수련하는 전라북도는, 전국 각도의 태권도 분포율로 보아 상위로 「랭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기원까지 버티고 있는 서울의 세(勢)를 누르는 것으로 좋은 여전에 있는 중앙(서울)의 태권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관계자들에 연구과제를 던져준 심각한 현상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전라북도는 지난 52회와 53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제1회 소년「스포오츠」대회에 이어 또다시 전국을 개패 「태권전복」을 이룩한것은 오로지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강화훈련에 기인한 것이 었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미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국을 석권하는 건복태권도의 배우에는 道교육위인회를 지휘함으로써 하고, 지경의 일상불란한 지선, 그것은 강화훈련에 필요한 온갖 노력

과 경비를 해결했고, 이가를 틈타서 대표선수급의 우수선수를 기용하여 고차적인 기술훈련을 시도했다.

특히 선수들의 체력관리를 과학화하고 단계적인 기술개발에 나서, 선수로 하여금 평소 훈련의 연장을 경기에도 부합시킨 치밀한 계획은 높이 살만한 배려였다 태권도는 다른 경기와는 달리 생활화한 수련, 그리고 높은 도(道)의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의 집약이 중요하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강화훈련이 없이 좋은 성과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강화훈련의 중요성은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한국의 진종목우승이 1개월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화훈련의 결과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체력이 강한 서구인들, 그들은 능한 세기(細技)를구사하면서 종주국 태권도를 위협하였으나 그들 앞에 우리 한국「팀」이 당당히 군림하여 왕좌를 지키는데 성공한 것도 최종 1개월간 강화훈련의 소산인 것이다.

날로 뻬어가는 국내의 태권도에 있어 경기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를 압박해올 세계태권도세(勢)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정열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단자의 대량배출이 능사가 아니며 무도적 가치를 논할때도 이미 지난것이다. 다만 「스포오츠」소년대회에서 진일보한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종주국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전라북도 태권도 관계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계원들의 특출한 배려를 축주하는 바이다.

〈제2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 결승전 전격〉

핀	급	김근식(충남)	관	정	김근철(전북)	
프라이	급	이승현(제주)	관	정	박계희(강원)	
반	람	급	정명식(충남)	관	정	이낙희(전북)
페	터	급	윤석진(전남)	관	정	한윤식(전북)
타이트	급	황의용(전북)	관	정	김상진(경기)	
웰	티	급	안석만(전북)	관	정	공동우승 김용식(충북)
미	들	급	차상혁(서울)	관	정	최창학(충북)
해	비	급	이문주(충남)	관	정	홍성국(충북)

이상의 전격은 보도된바 없음으로 여기 밝힌다.

# 1973 年 指 導 者 教 育

작년 한해동안에 실시한 1천여명의 일신지도 고단자 교육에 이어, 지난 2월 24일부터 6일간에 걸쳐 83명이 국지에서, 3월 11일부터 6일간 전라남도 광주경찰국상무관에서 88명이 강습에 참가하였다.

매년도 중추국의 변모는,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구대 의연한 체질개선에 있어 비롯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金雲

龍 내한대권도협회회장의 구호에 따라 전체 태권도인의 열열한 호응 속에 실시되어 왔다.

한편 73년도 지도자교육 일정은 제 1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관계로 한동안 중단되어 있었으나 곧 정상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第二期(3次) 부산教育(73. 12. 8~12) (지나호 누락자 명단)

成高	百永	塗壺	林王	明武	植昌	辛金正	德明	俊俊	黃宗	國植	姜南	柱一	姜林	奎堯	文劉	周鍾	學萬
襄周	勝吉	植朴	相朴	旭許	洛相	崔祥	俊俊	朴進	李春	萬萬	李相	珍珍	曹東	煥根	李道	潤潤	潤潤
宋金	準培	培李	相李	棟棟	權權	朴來	玉淳	鄭尹	聖聖	魯魯	姜秀	旻旻	鄒萬	鳳榮	李彩	龍立	龍立
崔李	恩鍾	鍾培	文得	龍龍	根根	金呂	潤潤	孫永	正正	佑愚	姜呂	又又	張萬	榮英	金一	權權	權權
盧金	平威	樹車	徐鍾	鍾鍾	憲憲	李祥	根照	鄭金	明明	石勇	鄒孫	錫錫	金朴	英秀	李富	圭圭	圭圭

## 第五期(一次) 國技院 73. 2. 24

李李	仁相	求赫	朴七	地聖	汶聖	金遵	泳國	崔大	伊秀	李官	承錄	李基	天吳	姜弘	順鉉
李李	相光	赫壁	朴金	七春	聖圭	李勝	國成	金昌	秀載	韓永	善淳	秋教	男吳	閔仲	鉉敦
朴李	麟正	壁九	金高	春興	圭圭	崔福	成星	金浩	載龍	林鄒	澤厚	吳林	輝吉	辛在	敦敦
羅安	正永	一來	崔金	興相	善圭	李容	準準	羅振	龍海	鄒金	淳玉	林朴	吉哲	李成	福賢
申朴	銀貞	花守	吳李	文正	圭明	崔沈	秀光	李永	喆惠	朴衣	洪均	金崔	圭求	金春	鎮喆
李田	平克	道烈	朴相	李性	宰宰	朴尹	泰萬	李春	正正	崔韓	均三	宰宰	求觀	朴龍	喆喆
蘇李	昌豐	烈榮	李尹	吉吉	浩洙	南金	星德	徐沈	然然	金金	泰光	宰宰	柳德	申柳	圭圭

## 第五期(2次) 全南光州 73. 3. 11

李金	匡濟	宰南	朴昌	雄雄	金性	彬秀	金炳	珍得	白權	善秀	朴宗	律洙	李殷	欽欽
金朴	時廉	宗榮	李金	坡坡	李哲	秀林	鍾炳	得然	奉甲	洙秀	安龍	洙石	梁東	烈烈
劉李	相安	榮吉	金重	玆玆	朴正	林男	炯照	泰泰	李金	圭圭	正正	敏敏	泰泰	吾吾
李李	洪鋼	采武	李二	扶扶	黃任	模洙	善正	峰峰	崔徐	洙浩	李李	性性	鋼鋼	坤坤
李李	洪鋼	采武	李二	龍龍	都姜	洙洙	正正	南南	徐徐	永彬	黃黃	琪琪	載載	煥煥
梁蔡	一舉	長勇	金洪	光均	姜姜	烈烈	炳炳	者者	河金	彬錫	曹曹	植植	洪洪	九九
金金	梁蔡	一舉	李洪	均均	姜姜	烈烈	基基	一來	材材	錫錫	金金	石石	洙洙	烈烈
毅毅	長勇	秀秀	李洪	均均	姜姜	烈烈	者者	一來	尹尹	錫錫	金金	守守	烈烈	烈烈
			李洪	均均	姜姜	烈烈	者者	一來	金金	錫錫	金金	守守	烈烈	烈烈
			李洪	均均	姜姜	烈烈	者者	一來	金金	錫錫	金金	守守	烈烈	烈烈
			李洪	均均	姜姜	烈烈	者者	一來	金金	錫錫	金金	守守	烈烈	烈烈

# 나의 修鍊記

## 【筆者 소개】

「헨리 콜름」博士는, MIT의 國立磁石研究院의 創設者이며, 磁石과 磁石學의 國際的 權威者로 알려진 분이시다.

1961년 磁石에 對한 論文으로 世界科學者의 耳目을 끈바 있으며, 著書는 數個의 科學辭典과 小冊子들이 있다.

그는 그의 生涯를 통해서 醫藥品의 研究와, 「깨스」나 高單位 「에네르기」 粒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高速度汽車의 推進力과 磁機性浮力을 적용 시키는 연구는 현대과학자들의 많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는것 중의 하나이다.

「콜름」博士는 美國政府와 產業界에 諮問을 받고 있다. 그는 MIT로 부터 받은 博士學位 以外에 「캠브리지」에 있는 석정학원에서 靑미의 有級을 받았고 商業航空士 免許도 갖고 있다. [편집자註]

Dr. Henry H. Kolm

제 말말 「마가렛」이 13세 되던 생일날인 1970年 여름, 태권도를 함께 배우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3년간 태권도는 人生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삶의 源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46세로서 M.I.T 國立磁石研究所의 主任 科學者로서 몇가지 研究계획을 지도함과 同時에 거의 每週 研究踏問次 旅路에 오르는등, 몹 분주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職業人들과 같이, 저와 같은 人生의 단계에서 本格的인 체육수련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분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렛」과 함께 入館을 결정했고, 「캠브리지」에 있는 석정道場에서 週2 회씩 수련 했습니다.

현재 딸과 저는 붉은 띠의 審査에 應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렛」과 함께 入館을 결정한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을 이끄는 바와 같이 關技로서의 최고인 태권도에 대한 驚歎과 一常生活에서 直面하게 되는 신체적인 위험이 생길 경우에 對處, 自信感을 갖기 爲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軍隊 情報部에 근무하는 동안 非武裝 戰鬪法을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30여년전의 일이지요. 그 이후 저는 「하이킹」, 등산, 「싸이클」, 「스키」등 많은 肉體運動을 해왔고, 숲속을 헤쳐 지점 저의 집과 땅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책상 앞이나 研究室 속에서 보내 왔습니다. 週末에 갖는 室外 일은 충분치 못했고, 보다 규칙적인 그리고 集約的인 운동이 명확한 目標에 도전할 계기를 줄 수 있는 調和와 克己를 要하는 運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이러한 必要性을 충족해 주었으며, 수년간 보다 훨씬 건강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수면을 갖지 못하면서도 보다 정력적이고 민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 딸 「마가렛」과 제가 함께 나눌수 있는 共通의 관심사를 제공했으며, 서로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世代間的 「링크」의 역할이기도하며, 서로 다른 背景과 利害,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武術이 사람들을 結束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태권도는 共同的인 관

심과 目標을 위한 結束을 제공해 줍니다.

태권도는 여러모로 무척 사회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좋은 음악의 아름다움 처럼, 몇 生涯의 完體化를 거치는 論理的 아름다움과 함께 科學의 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는 武術입니다.

어떻게 모든 기본동작이 신체의 커다란 근육으로부터 「에너지」를 이끌어 내며, 이완되고, 완전히 「마이빙」을 맞은 극도의 동작으로 부터 속도와 위력을 이끌어 내며, 완전히 조화를 이룬 逆動作으로 부터 균형을 취하는가를 초보자들이 두뇌와 신체로서 理解해가며, 이 아름다움을 인식케 되려면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강력한 발차기와 손공격이 상대방과 접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의 總和的인 前進의 박력과 회전적인 速力이 전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련에 심신을 던지는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의 가장 커다란 그리고 長久한 즐거움이란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오는것이지 성취 자체에 오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바로 몸세의 수련에 숨겨져 있는 哲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不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태권도에서 처음 맛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유대면, 즉 겨루기는 이 武術의 修行自體이며, 개성과 「스타일」을 배워익힌 기술과 연결 시키는 기피입니다.

그것은 또한 시합이라는 경제적인 도전감을 추가 시

켜주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격욕에 대한 건강한 육체적 突破口가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무결한 흡수력을 지니고 있어, 모든 잡념을 씻어 주기도 합니다.

태권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要素는 그것이 지도되고 수련되는 전통과 정신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들, 특히 西洋文化에 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탐방해본 몇몇 道場에서 보아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들은 이곳 「캠브리지」에 정석宗氏의 도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多幸으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이 道場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傳統의 精神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배경분골의 노력과 반복에 의한 완벽화의 追求와 함께 규율을 최상 없이 인내심, 個人에 대한 예의와 순수한 존경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全圖的인 시합에 出版,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는 高段者들로부터 처음 수련하는 영성한 初心者들에 이르는 모든 태권도인에게 이러한 정신을 고취 시키는 것이 정 사범의 개인적 공헌의 덕택입니다.

우리 道場의 모든 수련생들은 이 정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코쉬」나 체육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야만적이고 非文明的인 분위기와는 특히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렛」과 저는 지난 3년간의 태권도 수련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이 허락하는 限, 수련을 계속할 豫定입니다.

또한 「마가렛」이 成長에서 出嫁할 경우, 막내딸도 수련을 시작 시킬 생각입니다.

## 原 文

Tae Kwon Do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for three years now, and a source of pleasur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 owe it largely to my oldest daughter Margaret, who asked for Tae Kwon Do lessons for her thirteenth birthday, in the summer of 1970. I was 46 at the time and leading a very busy professional life as senior scientist of the MIT National Magnet Laboratory, directing several research projects and also travelling on a consulting trip almost every week. Like most professional people, I could say that I am too busy to begin serious athletic training at my stage of life. Nevertheless, I decided

to join Margaret, and we have been attending classes twice a week at the Suk Chung Institute in Cambridge. We are about ready to take the examination for the degree of brown belt.

There are really several reasons for my decision to join Margaret. The most obvious one, and the one which attracts most people, is an admiration for Tae Kwon Do as the ultimate in martial art, and a desire for self-confidence in situations of physical threat to which everybody is exposed daily. I did have training in unarmed combat while serving with the Military Intelligence, but that was almost thirty years ago. Since

then I have done a lot of hiking and mountain climbing, bicycling and skiing, and I have also cleared the forest and built my own house and barn. But for the past ten years I have spent too much time at a desk or in the laboratory. Outdoor work during weekends was not enough, and I felt the need for more regular and concentrated exercise, and exercise of the sort which requires coordination and Self-discipline, and which provides the challenge of a definite goal. Tae Kwon Do has filled this need, and I have felt healthier than I have in years, and more energetic and alert despite the fact that I never get enough sleep. But Tae Kwon Do has done more than that. It has provided an interest which I can share with Margaret and which has enabled us to know and appreciate each other better. It has also introduced both of us to a world of people we would not otherwise have met. It is in a way a link between generations, and a link between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interests, and different walks of life. It may seem like a peculiar contradiction that a martial art should serve to draw people together, but Tae Kwon Do does provide the bond of a common interest and a common goal. It is in many ways a very social sport.

But Tae Kwon Do is also an art based very much on scientific principles, with a logical beauty which comes from many lifetimes of perfection, like the beauty of good music.

It is only gradually that the beginner becomes aware of this beauty as he understands with his brain and his body just why every basic movement must follow perfect form to draw energy from the large muscles of the body, speed and momentum from a relaxed and perfectly timed motion of the extremity which strikes, and balance from a perfectly coordinated counter-motion. The total forward momentum and rotational momentum of the body must be preserved, even if the most powerful strike or kick fails to make contact. Once one recognizes the beauty of perfection, one derives pleasure from the effort of practicing to achieve

it. The greatest and most enduring pleasure in life comes from effort to achieve, not from the achievement itself, and this is the philosophy behind the practice of form. It is unfortunate that many people never experience this sort of pleasure, and for some Tae Kwon Do is their first experience of it. Free-sparring is the performance of the art, an opportunity to combine individuality and style with learned technique. It also adds the competitive challenge of a game, and a healthy physical outlet for aggression which most people need. It is completely absorbing,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akes one's mind off everything else.

An important element in Tae Kwon Do is its tradition, the spirit and atmosphere in which it is taught and practiced. This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to persons not acquainted with it, particularly to persons of western background, and is in fact not properly appreciated in some of the schools we have visited. In this respect we are very fortunate in having the institute of Mr. Sukjon Chung here in Cambridge, because it preserves the traditional spirit to the highest degree. This spirit involves uncompromising pursuit of perfection by perseverance and repetition, combined with patience, courtesy and a genuine respect for the individual without any sacrifice of discipline. It is the personal dedication of Mr. Chung which has preserved this spirit, and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his top black belts at national tournaments, as well as the effort of his clumsiest beginners at their first lesson. All of us at the institute appreciate this spirit, particularly in contrast to the barbaric, uncivilized atmosphere which surrounds most of the coaches and gym teachers in our schools and colleges.

Margaret and I have enjoyed Tae Kwon Do these past three years, and intend to continue as long as circumstances permit. I look forward to starting with my youngest daughter after Margaret has grown up and left home.

# 1973年度 技術審議會 任員



會長 金雲龍



技審委  
議長 李南石



技審委  
副議長 裴永基



企劃分委  
委員長 高在天



競技分委  
委員長 金寅錫



競技分委  
副委員長 韓永泰



審查分委  
委員長 金順培



審判分委  
委員長 李炳路



審判分委  
副委員長 池相燮



賞罰分委  
委員長 李龍雨



國際分委  
委員長 白駿基



派遣分委  
委員長 李敎允



派遣分委  
副委員長 金先九



教育分委  
委員長 玄友泳



教育分委  
副委員長 朴海滿



研究分委  
委員長 洪正杓



編輯分委  
委員長 李永燮



編輯分委  
副委員長 姜元植

# 세계 태권도대회 때 발족

## 이태원 국민학교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성장하여, 종주국인 한국에서 선수권대회를 열게 되자 국내의 태권도 「불」은 요란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태원국민학교 김 남권 교장은 수년동안 태권도 실사를 계획하여 요인중 세계선수권대회에 때를 같이하여 발족을 보았다.

김 남권 교장은 대한태권도협회 1970년도 태권도대상 수상자인 이상철 사범을 초빙하고, 강 병선 사범과 김 용호 사범을 기용하여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이에 빈 열심 교감과 민 병기 체육주임교사는 태권도 수련에 적극협력은 물론 태권도에 관심을 갖은 어린이 2백여명을 모아 수련을 시작했다.

『태권도를 통해 신체발육 향상을 꾀하고, 자립 협동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첫째의 과제라고 말하는 이상철 사범의 말과 『평년도 국민학교 자풍 대회에 출전은 물론 전교생이 증강체조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할수 있도록 보급 확대계획을 구상중』이라는 김 인천 교장의



—이태원국민학교 태권도부 일동—

모부는 이태원국민학교 태권도 발족은 물론 한국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이 었 보였다.

짧은 역사에서 알찬 수확을 견유했 태권한국의 건봉을 이어갈 이태원국민학교 어린이들은 7월의 목요일에 힘찬 기합소리로 더위를 잊고 있다.

# 태권도로 민족주체성 심어주는

## 불광 국민 학교

우리는 튼튼한 몸을 길러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힘찬 수련생들의 수련신조와 함께 운동장은 온통 기합소리로 꽂 찬다.

이 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71년 11월, 그러나 나그날리 아동 체력증진과 민족 주체성 확립에 관심을 쏟는 전 봉림 교장이 부임하고 나서 부터이다. 학교태권도에 많은 관심이 있고 스스로 현역 태권도인이기도 한 지도교사 김 영기(6~2 담임) 선생님의 노력으로 처음 80명을 모집, 시작한 것이 현재는 유단자만도 60여명을 배출, 수련생은 300여명에 가깝다.

유일문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교에 출정 지도하는 강병욱 사범의 말에 의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상이국민학교 학생들이었기에 예모가 너무도 많았고 심지어 복구명이 낫고 몸살까지 치루어야만 했다”고 과거를 회

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단자가 된 군현이 잡힌 의것한 제자들의 몸매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 건 국민이 총력안보의 대열에서, 또 건 세계를 향한 태권도한국의 입장에서 국민학교의 태권도가 체육과 교과 과정에 정해진 이 시점에서 꼭 다형스럽고 바람직함을 절감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학생이 참여하여 세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을 빛내도록 해야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 지원과 합심하여 4,5,6학년 전원에게 태권도를 시키겠다”고 전 봉림 교장은 말했다. 도장에서 아침마다 수련을 쌓고 있는 이 학교직원들 중에는 벌써 유단자만도 5명이나 된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이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싶을 따름이다.

# 외로운 벽지학교에 순회 시범 실시

## 서울은로국민학교

서울 은로국민학교 태권도부는 1972년 3월 5일에 창설되었다.

『자주국민당의 근원은 어린이들의 심신단련에서 이루어진다』는 강 진현 교장의 굳은 신념으로 태동을 본이 때 태권도부는 단시일 동안에 큰 발전을 보았다.

2백 70명의 고정수련생과 1백 17명의 유단자가 있는 은로국민학교는 태권도시범단을 결성하고 벽지의 국민학교 어린이를 위호하는 순회시범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충청북도 계천군 소재 삼선국민학교를 찾아가서 학용품 4백점을 전달하고 20명의 시범단이 표기를 보여 첫 순회시범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어 7월 8일 파주군의 탄현국민학교에서 시범을 보여 줌으로써 벽지 어린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와 같은 순회시범은 “태권도 인구의 저

번확대와 계몽은 물론 약한자를 돕고 의(義)로운 일에 앞장서는 태권도 본연의 정신구현으로서 교육적인 가치도 크다 하겠다.

한편 짧은 기일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은로국민학교 태권도 발전은, 『학교 전체 교사들이 성원하고 학부모들이 열의 있는 후원을 보내준 때문에 이룩된 것』이라고 이 규정 사범(6년)은 말하고 「앞으로도 외로운 벽지의 어린이를 돕는 순회시범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은로국민학교 시범단 어린이가 다수 참가한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므로써 태권도 전통이 오랜 학교를 앞서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 규정 사범은 모습은 신에 은로국민학교 태권도부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다.

### 캠 페 인

#### 벽지와 낙도에 도복을 보냅니다

이제 태권도 가족은 1백 50만 대가족으로 늘어 났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낙도와 벽지에서 남녀노소가 수련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태권도 종주국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도복을 입지 못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낙도(落島)와 벽지(僻地)의 어린이들 경우는 도복을 입은 사람보다 입지 못한 수련인이 많이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태권도「誌」에서는 태권도복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뜻있는 여러분의 호응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반드시 새 도복이 아니더라도 입다가 적어진 것 혹은 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먼지가 쌓이고 있는 주인없는 도복이 벽지의 어린이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각 도장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보내실곳 :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보내는요령 : 소포로 우송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져올 것.

기타 자세한 것은 ☎ 2374로 문의해 주십시오.

#### 1차 접수자 명단

▲ 서울 은로국민학교 태권도부 일동 10벌

▲ 한양대학 전자공학과 2년 차 正漢 1벌



## ▲ 제11회 全國中·高·大學 團體 對抗戰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중등부는 2개교가 줄어든 5개「팀」이 참가하고, 고등부는 2개교가 늘어 17개「팀」대학부는 4개교가 증가한 9개「팀」이 출전하여 母校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고 조용히 막을 내렸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대회는 학생들 가운데서도少年期와 青年期 선수들의 경합이어서, 대회에 거는 期待는 다른 경기보다 더욱 주목을 끌었다.

여기 출전하는 선수들이야말로 중주국 태권도의 중추가 될 재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기술면에서 평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정도에서 그칠 반면, 정신면에서 많은 문젯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먼저 중등부 경기에서, 태권도의 명문교로 알려졌던 인천 동산중학교는 1969년 이후 4연승의 기록을 서울 광성중학교에 내어 놓았다. 이것은 큰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부장선수를 기용하여 「게임」을 물론 당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다. 출전을 묵인한 학교당국이나 사범, 「코치」, 모두의 양식을 의심할 수 없었다.

협회상분과위원회는 이들에게 각각 계명경권을 명하여 엄격히 다스렸으나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경기에 부정이 있었다니 실로 개탄할 일이다.

더욱, 정제나 벌을 가하는 것으로 태권도 본연의 자세를 확립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태권도인의 긍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再論키나 태권도가 무도에서 「스포츠」로 병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야말로 태권도정신과는 너무나 격리가 먼 것이다. 다른 어떤 경기에서 부

정선수가 있다면 그것은 승부욕이 지나쳤다가 예교로 보아 넘길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태권도는우리 고유의 한국적 양식을 전승하는 무예로서, 몸보다 정신을 지배하는 또다른 의미가 있기에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선수가 사범과 심판에 절대복종하는 모습과, 관정이 내려도 승부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의 선전을 격려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은 태권도들 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배운 자랑스런 모습이였다.

다음, 대학부 태권은 고려대학이 최초로 차지했다. 잘 짜여진 「팀웍」으로 연세대와 전년의 우승「팀」인 성균관대학을 차례로 격파하고 결승에서 강호 명지대학을 이긴 고려대학의 우승은 정당하고 값진 승리였다.

한편 고등부 경기는 광성고교가 9회 10회와 금번 11회로 3연승하여 우승기를 완전히 정취한 것은 실수「코치」 그리고 이들을 후원한 학교당국에 경하를 보내고 싶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승부욕에 급급한 나머지 대회의 성격과 사명을 잊고 秩序와 德育의 실질을 망각하는행위의 근절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대회의 언론이 늘어나면 價와 價에 있어 알차고 빛나는 전통을 쌓아 보람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연례행사로 끝내는 대회운영이나 한낱 「페스티벌」의 전시효과를 노릴때가 아니다.

세계태권도인이 중주국의 동정을 지켜보고 배워가는 현실을 省察하고 舊德의 精神風土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싶다.

## ▲ 제 4 회 전국 국민학교 개인선수권대회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7백56명의 국민학교 선수들이 각급의 선수권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72년 3회대회 보다 예상외로 많은 선수가 출전, 대회입원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도 무위로 연결경기(7월 14일)를 갖고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기술이 향상되고 평준화된 실력 때문에 승부분 가려 주는데 많은 예로점이 있었다. 그러나 승부세계를 예민하게 의식하고 희비(喜悲)를 갖는 어린이의 풍심을 볼때 지나친승부욕의 권장은 재고(再考)되어야겠다는 생각이였다.

## △ 제 1 회 서울교육대학장배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지난 4월 17일 서울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서울시내 71개교 3백 43명의 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올렸다. 이 대회는 날로 번성해가는 중주국 태권도를 국민학교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 주관하므로서 질적향상을 꾀해 보겠다는 이 철회 학장의 배려에서 태동을 보았다.

이에 본 태권도협회는 전국에 있는, 2만여 국민학교 유단자의 자질향상에 획기적 기틀마련에 도움이 될것을 확신하고 관심양면의 후원을 보냈다.

기술 우수한 선수의 배양은 나이리 국민학생 때부터 철저한 수련을 계속하므로서 완성되는 것이며, 책임있게 경기를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므로서 태권도의 기술발전은 보장되는 것이다.

많은 태권도 고단자들은 각종 국내의 대회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기술이 놀라움계도 국민학교 학생들의 경기에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민학교 학생들의 열성적인 수련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연령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련시작 기간이 소년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점을 생각할 때 서울교육대학에서 실시한 이번대의

는 기존의 어떤 때어 못지않은 귀중한 비증을 찾아한다고 보아야겠다.

이 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박 대진(교육대학 태권도강사) 사범은 『제 1 회 대회에 3백 41개 국민학교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것에 감사하고 많은 애로속에서도 대회를 주관해 주신 김 기주 교수께 감사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대항전에서 전국 국민학교를 망라한 대규모의 대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종합우승을 찾이한 영등포국민학교에는 우승기와 우승컵이 수여됐으며 우승기는 3연승을 한 학교가 영구히 보관케 된다.

### ▲ 대회전적

- 종합우승 영등포국민학교
- 준 우 승 미동국민학교
- 1 위 승덕국민학교
- 2 위 영화국민학교
- 3 위 무궁화국민학교

## 진성기업

메달·뺏지·상패·태권도용품일체



대표 이 덕 태

(대한태권도협회 기획본과 부위원장)

서울·종로구 관철동22번지 (금호빌딩 203호)

TEL. 269-7020

## 발 축 전

## 백제회관

Room Salon

TEL. 543-8788, 8070

## 백마하우스

가라오게식 스텐드바

대표 박 현 섭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 위원장)

T. 543-2323, 546-4545

자현빌딩지하

백제장호텔

백제회관

동호대고

신사동4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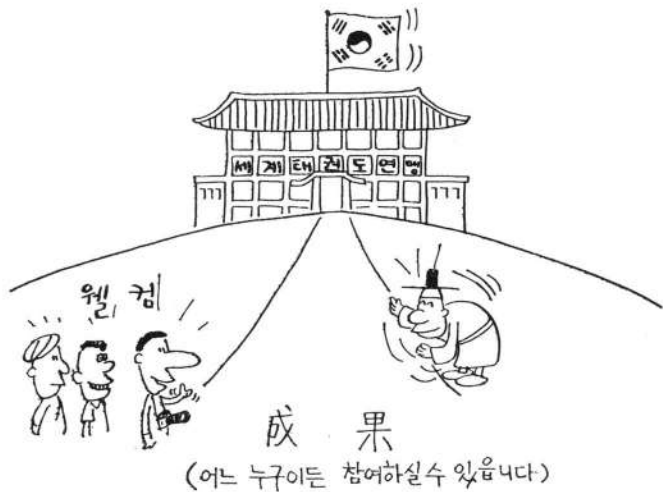
→도산로·도산공원→

영등포빌

▶레깅가든

# 跆拳道漫評

박영래



한장 깨면 사원, 두장 깨면 계장  
세장 깨면 과장, 네장이면.....



↑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 태권도 기술심의회

TAE KWON DO ILLUSTRATED



## 기술심의회

금강(金剛)이란 지혜(智)와 덕(德)의 면에서 견고(堅固)하고 외부로 부터의 공략(攻略)에 결코 파괴(破壞)되지 않는 힘에 기본을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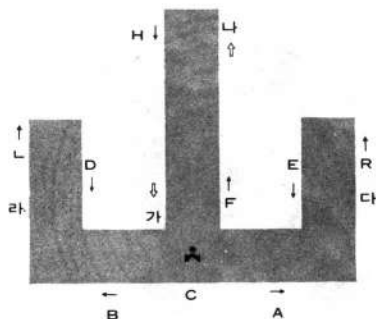
경주·석굴암(石窟庵) 입구에 조각되어 있는 금강역사상(金剛力士象)과 천하비경인 금강산의 위용(偉容)을 나타낸 산돌막기의 자세는 숭엄(崇嚴)하고 웅대무비(雄大無比)한 뜻을 넣어 품세 금강의 대표적인 예로 삼았다.

연무선은 「山」자로 되어 있다. 산은 탄탄(坦坦)한 기반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산돌막기를 많이 적용하였고 또한 예리하면서도 변화무쌍한 형태는 칼로 다듬은 듯이 강도(強度)와 절도(節度)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바탕손뚝치기등을 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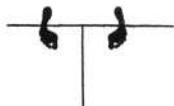
품세 금강은 수련자가 진행선 위에서 앞을 향하여 「山」자로 동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본에는 사진 설명상 「卍」자로 진행선이 뒤집혀 지므로 교본을 읽는 불편을 덜기 위해 「山」자로 표기하였으니 사진설명과 동작 진행에 차질 없도록 주의하고 또한 방향을 나타낸 「가. 나. 다. 라」는 사진과 같은 방향을 나타 내었다.

폼세진행선



동작수 27동작  
actions = 27



※ Ready Stance  
The Same as in PALGYE  
form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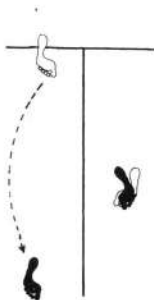
제 1 동작

1. 왼발이 앞으로 나가("가"방향)
2. 왼 앞굽이
3. 안팔목 몸통 헤쳐막기

1st action

- a. Take a left step forward (toward "F")
- b. Assume a forward stance
- c. Execute a middle pushing aside with the inner wrists.

※ When you assume a forward stance, cross the right wrist over the left wrist over the leaf wrist extended, in front of the chest, palm downward and then execute the motion "C"



②



제 2 동작

1. 오른발 한걸음나가
2. 오른 앞굽이("가")
3. 오른 바탕손 덕치기

2nd action

- a. Take a step forward with the right foot
- b. Assume a forward stance
- c.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heel of the right hand.



제 3 동작

1. 왼발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이("가")
3. 왼 바탕손 턱치기

3rd action

- a. Take a left step forward
- b. Assume a forward stance(toward "F")
- c.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heel of the left hand.



제 5 동작

1. 오른발 한걸음 물러나
2. 오른 뒷굽이("가")
3. 왼 한손날 몸통 안막기

5th action

- a.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b. assume a back stance.
- c. Execute a middle inner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제 4 동작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가")
3. 오른 바탕손 턱치기

4th action

- a. Take a right step forward
- b. Assume a forward stance
- c.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heel of the right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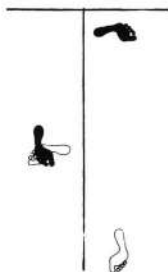


제 6 동작

1. 왼발 한걸음 물러나
2. 왼 뒷굽이("가")
3. 오른 한손날 몸통 안막기

6th action

- a. Take a back step with the left foot
- b. Assume a back stance(toward "F")
- c. Execute a middle inner block with the right knife hand.





제 7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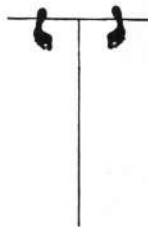
1. 오른발 한걸음 물러나
1. 오른 뒷굽이("가")
2. 왼 한손날 몸통 안막기

7th action

- a. Take a back step with the right foot
- b. Assume a back stance
- c. Execute a middle inner block with the left knife hand.



⑨



제 9 동작

1. 왼발을 "다" 방향으로 내려밧어
2. 주춤서기(시선 "다"방향)
3. 왼 큰둘꺼귀

9th action

- a. Put the left foot on a position of the line "B"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F" keep eyes to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lef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with the right fist, holding the right fist above the left fist at the left side of waist level.



⑧



제 8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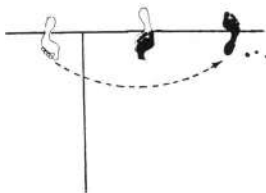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들어올려
2. 오른 확대리서기
3. 금강 막기(평형성유지. 천천히) 시선 "다" 방향

8th action

- a. Slightly lift up the left foot without moving the right foot
- b.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placing the left foot on the side of right foot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palm forward and a low side-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with force, (keep balance and execute this motion slowly) keep eyes toward "B"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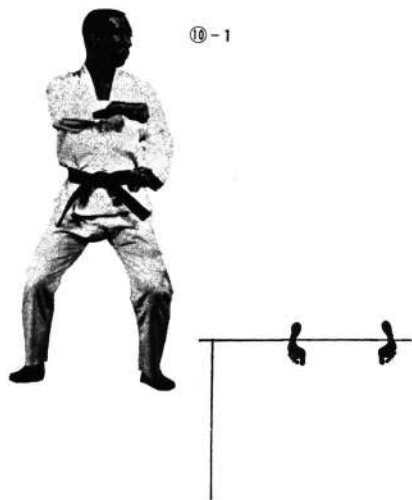


제 10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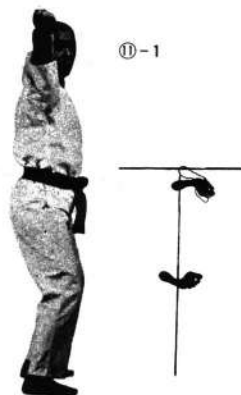
1.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꺾어서 축이 되어 왼편으로 돌려(360°) 왼발을 "다" 방향으로 내 밧어
2. 주춤서기(시선 "다")
3. 왼 큰둘꺼귀(빨리)

10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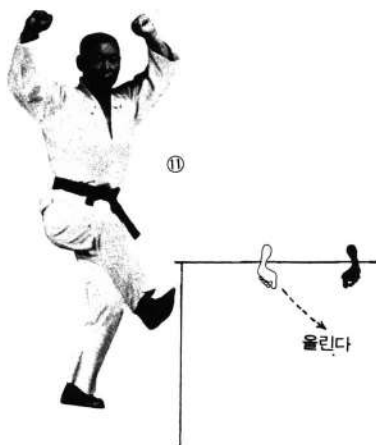
- a. Cross the right foot over the left foot and rotate on the right foot to the left in a flash. place the left foot on a position toward "B"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toward "F" keep eyes to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lef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with the right fist over the left fist at the left side of waist level.



⑩-1



⑪-1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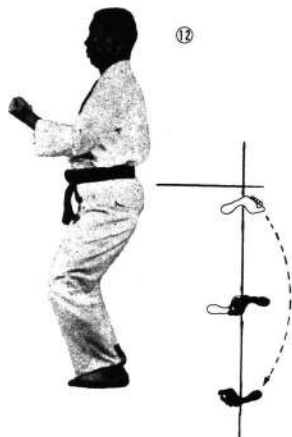
올린다

### 제11동작

1. 오른발을 들어 올려(상대방 정강이 풀기 "가" 방향으로)
2. 주춤서기("다"방향)
3. 산물막기 —"기합"—

#### 11th action

- a. Lift up the right foot toward "L"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inner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and a high outer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yell"—



⑫

### 제12동작

1.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발이 "가" 방향으로 로나가
2. 주춤서기("라"방향)
3. 안팔목 몸통 헤쳐막기(빨리)

#### 12th action

- a. Pivoting on the right foot to the right, move the left foot toward "L"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A"
- c. Execute a middle pushing-aside, palm upward with the inner wrists.



⑬



## 제13동작

1. 왼발을 오른쪽쪽으로 끌어
2. 편히서기
3. 아래 헤쳐막기(서서히 숨내쉬며)

## 13th action

- a. Draw in the right foot to the left.
- b. Assume a natural standing-stance
- c. Execute a low pushing aside, palm downward, with the outer wrists, exhaling slowly.

⑭-1



⑭



## 제14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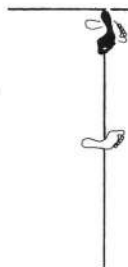
1.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들어올려 정갱이 옮기("나"방향)
2. 주춤서기("다"방향)
3. 산돌막기

## 14th action

- a. Turning to the left, lift up the left foot toward "D" and Make a posture as if you tried to kick the opponents back of the knee joints.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 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inner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d a high outer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⑮



## 제15동작

1.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들어올려
2. 왼 확대리 서기로("라"방향)
3. 금강막기(평형성 유지, 서서히)

## 15th action

- a. Turning to the right, slightly lift up the right foot without moving the left foot
- b. Stand upright on the left foot placing the right foot on the side of left foot(toward "L")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palm forward, and a low side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with force (this motion should be executed slowly keeping balance)



16

제16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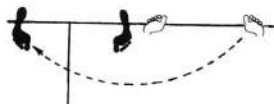
1. 오른발을 "라" 방향으로 내려 들어
2. 주춤서기(시선 "라"방향)
3. 오른 큰들찌귀

16th action

- a. Put the right foot on a position of the line "B"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L" keep eyes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left elbow, palm up ward, and aside punch palm downward with the left fist, holding the left fist above the right fist at the right side of waist level.



17-1



17

제17동작

1.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꼬아서 축이 되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360°) 오른발을 "라" 방향으로 내 들어
2. 주춤서기 시선 "라"
3. 오른 큰들찌귀(빠르게)

17th action

- a. Cross the left foot over the right foot and rotate on the left foot to the right in a flash place the right foot on a position toward "A"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F" keep eyes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righ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palm downward, with the left fist, holding the left fist above the right fist at the right side of waist level



18

올린다

제18동작

1. 왼발 제자리 오른발 들어올려
2. 왼 확대리 서기(시선 "라")
3. 금강막기 (평형성 유지 · 서서히)

18th action

- a. Slightly lift up the right foot without moving the left foot
- b. Stand upright on the left foot placing the right foot on the side of left foot keep eyes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d a low side-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with force.  
(This motion should be executed slowly keeping balance)

19



19th action

## 제19동작

1. 오른발을 "라" 방향으로 내딛어
2. 주춤서기(시선 "라")
3. 오른 큰 돌쩌귀

- a. put the right foot on a position of the line "A"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F" keep eyes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righ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with the left fist, holding the left fist above the right fist at the right side of waist level.③



20-1

20



20th action

## 제20동작

1.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꺾어서며 축이 되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360°) 오른발을 "라" 방향으로 내딛어
2. 주춤서기 (시선 "라")
3. 오른 큰돌쩌귀(빠르게)

- a. Cross the left foot over the right foot and rotate on the left foot to the right in a flash and place the right foot on a position of the line "A"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F" keep eyes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righ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with the left fist holding the left fist above the right fist at the right side of waist-level (It should be executed quickly)

21



올린다

## 제21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들어 "가" 방향을 향하여 굴러 딛고
2. 주춤서기("라"방향)
3. 산물막기—"기합"—

21st action

- a. Slightly lifting up the left foot, turn to the right and stamp on the left foot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inner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d a high outer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palm parallel to the face.—"yell"—



㉑-1



㉒



**제22동작**

1. 왼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오른발 "가" 방향으로 나가
2. 주춤서기 ("다" 방향)
3. 안팔목 헤쳐막기(빠르게)

22nd action

- a. Pivoting on the left foot to the left, move the right foot toward "R"
- b. Assume a horseing aside palm upward, with the innerwrists(be executed quickly)



㉓



**제23동작**

1. 왼발 제자리 오른발을 왼발쪽으로 끌어
2. 편히서기("다"방향)
3. 아래 헤쳐막기(서서히 호흡내어서 다시 마시고)

23rd action

- a. Draw in the right foot to the left without moving the left foot.
- b. Assume a natural standing stance toward "B"
- c. Execute a low side-block with the outer wrists



㉔



**제24동작**

1. 왼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들어 "나"방향을 향하여 굴러 담고
2. 주춤서기("라"방향)
3. 산를막기

24th action

- a. Pivoting on the left foot to the left, lift up the right foot toward "E" and stamp on the right foot.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A"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inner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palm parallel to the face, and a high outer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24-1



제26동작

1. 왼발 "다"방향으로 내딛어
2. 주춤서기(시선 "다"방향)
3. 왼 큰들찌기

26th action

- a. Put the left foot on a position of the line "A"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with the left elbow, palm upward, and a side punch, palm down ward, holding the right fist a bove the left fist at the left side of waist level.



25



제25동작

1. 오른발 제자리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90°)왼발을 들어
2. 오른 학다리서기(시선 "다"방향)
3. 금강막기(평형성유지, 서서히)

25th action

- a. Turning to the left, slightly life up the left foot without moving the right foot.
- b.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placing the left foot on the side of right foot. keep eyes toward "R"
- c. Simultaneously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palm forward, and a low side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with force. This motion should be executed slow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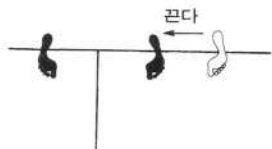
27

제27동작

1.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나가 꼬아서 축이 되어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360°)왼발이 "다"방향으로 주춤서기(시선 "다"방향) 왼 큰들찌기(빠르게) "그만" 왼발 끌어 준비 서기로

27th action

- a. Cross the right foot over the left foot and rotate on the right foot to the left. in a flash. move the left foot toward "C"
- b. Assume a horse riding stance toward "F" keep eyes toward "B"
- c. Simultaneously execute a back strike, palm upward, with the left elbow and a side punch with the right fist, palm down ward, holding the right fish above the left fish at the left side of waist level.(be executed quickly) "Drawing the left foot to the right assume a ready stance"



# 진성기업

메달·뺏지·상패·태권도용품일체



대표 이 덕 태

(대한태권도협회 기획분과 부위원장)

서울·종로구 관철동22번지 (금호빌딩 203호)

TEL. 269-7020

# 발 축 전

## 백제회관

Room Salon  
TEL. 543-8788, 8070

## 백마하우스

가라오게식 스텐드바  
대표 박 현 섭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 위원장)

T. 543-2323, 546-4545

재현빌딩지하  
백제점호텔  
백제회관

동호대교

신사동4거리←

→도산로·도산공원→

영동호텔

▶레팍가든

# 수 양 의 소 고

— 洪 正 杓 —

수양의 목적은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에 꺼리길 없는 존재, 즉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려내려면 우선 인격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인격이라 함은 사람의 자격이다.

어떠한 것을 사람의 자격이라고 할까? 금수나 벌이 지나 다 행동하고 작위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가 밖으로 부티의 충동과 타고난 선천성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서 별로 그 목적의식을 깨닫고 그에 따라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만이 능히 자기의 행위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따라 동작하는 것이다.

이에 또한 인격의 본질이 있다. 인격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자각하여 그 가치를 아는 데 있다. 이미 자기의 의의를 자각하고 그 자각에 의하여 행동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는 자기에 대하여 자유이며 독립이다. 자유인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서 의(義)에는 순양이 되고 불의에는 역센 사자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해켈」은 “자코로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앞에 말한 수양관에 대하여 충분한 뒷바침이라 믿는다.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수양은 실로 사람으로서 선(善)을 하고 악(惡)을 제거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다. 자기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곧 수양함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충동을 억눌러 참는 즉 인고(忍苦)를 습관화시키고자 한다. 왜?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니 곧 그 순간적인 습관들이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범한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관(觀)이 잘 적용되리라 믿는다. 다소의 노력을 요한 도덕상의 행위도 그 품성의 함양에 의한면 용이하게 이것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즉 습관은 발달길 위에서 큰 바위를 굴러 내리는 것과 같이 그것의 용직임에 있어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용직이면 다음에는 정지 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힘의에 있어서의 수양의 일반목적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그 목적의 부분적인 면으로 보면

「신체의 강건」과 지능의 개발, 「취미의 함양」, 「의지의 단련」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인격을 완성하고 품성을 도야하고 신체를 강건하게 하며 지능을 개발하고 취미를 함양하여 의지를 단련하기 위한은 단지 자기를 높이기 위한이 아니고 곧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되게 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상부상조하여 서로가 생존하는 것이다. 사회를 떠난 생존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감정에 의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 이상 실현에 대한 노력은 실로 인간으로 하여금 지고한 존재가 되게한 요인이며 문명한 사회 개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에 향하려는 영명을 가진 것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즉 타에 의하여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당하고 하등의 이상도 없이 생존하는 노예와 같은 것은 완전한 인격을 구유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대는 민주사회로 각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 자유가 방종이 되기 쉬우므로 수양이란 오히려 현대인에게 더욱 요청된다고 보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자아를 알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려면 사회적인 문제로는, 즉 계도상으로는 역시 민주사회가 이룩되어야 하고, 개인은 보다 높은 수양을 쌓아 인격을 완성하여 상호양해의 정신으로 서로 결합하여야 함은 사회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수양도 서로 함께 따라서 이상 발전에 노력하는게 더욱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상과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운동중에 하나인 태권도를 수련하여 참된 인간을 만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태권도의 보급과, 선진시키는 지났다고 본다. 태권도에 올바른 이해로 체계를 세워 무도로서 면모가 호려지지 않도록 정지 단계에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미 오맹전통과 이념을 체계화하여 국민체육에 알맞게 만들어 국민이 배워 수양과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켜 명실 상부한 국기태권도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奴婢의 秘戀



백 준 범

성진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오늘이야말로 향이 아씨를 설득시켜 임대감의 안방에 있는 병기고(兵器庫) 열쇠를 훔쳐 내야 한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장안에는 초경(初更)을 알리는 인경이 울려 퍼진다.

이제 노비들은 저마다 일을 끝내고 뜻뚱한 행낭채로 모여 들고 있다.

그리고는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담배 삼지름 꺼내어 구수하고 침나오는 얘기를 시작한다.

성진이는 엉거주춤 이들의 뒷자리에 앉아 얘기는 한쪽 귀로 흘리고 있었다.

성진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행낭채에서 켜어질 듯 웃으며 떠들어 대다가 하나 풀 앉은 자리에서 잠이 들고, 이제는 제일 연노란 김칫지 마저 울룩 울룩 잔 거칠을 하며 죽은 듯이 아랫목에 잠이 들었다.

『됐다!』

성진이는 몽롱하던 정신이 반짝 깨었다. 허리춤을 꼬쳐매며 사방을 둘러 보고 모두들 잠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산그머니 문을 열고 앞 뜰로 내려섰다.

성진이는 발 뒷축을 들고 성큼 성큼 향이 아씨가 있는 뒷뜰로 달려간다.

『조으는듯 기다리는 저 불은……』

성진이는 가슴이 뻘을 억제할 길 없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는 야망에 불타 있었다. 이 밤중, 아니 명상시에도 성진이의 야심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성진이 만의 피땀한 원한인듯 싶었다.

이윽고 후당에 바짝 닦아선 성진이는 촛불 아래서

위척이는 향이 아씨의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다.

성진이가 낮은 기침을 두번하자 기다렸다는 듯 방문이 열리며 향이 아씨는 성진이를 맞아들인다.

이제 성진이와 향이 아씨는 이집의 노비와 무남독녀의 지체를 초월하는 사랑하는 사이지만, 예초의 뜻은 다른 것이었다.

## 택견편의 기적

성진이는 선조대왕때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크게 반발하였던 김 대감의 아들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김 대감은 무참히도 가문과 지위가 박탈당한채 귀양을가서 화병으로 죽고 가족은 불뿔이 헤어져야만 했다. 이 원한이 성진이의 뼈속 깊이 사무쳤고 원수를 갚으려는 일념에 불탔다.

『그렇다!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 가야 한다.』

성진이는 그야말로 남부한 행색으로 부친을 몰아세운 간신배 임대감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리하여 그 집의 노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원수라는 감정을 버리고 성진것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할 거사를 차근차근 계획했다.

그런데 대감이 거처하는 방의 기밀을 빼내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것 같았다. 왜냐하면 대감방 앞에는 늘 모종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진이는 생각끝에 묘안을 얻었다.

대감이 꽃과같이 어여쁜 무남독녀 외팔에게 가진 수단을 써서 접근하면 일은 쉬울것 같았다.

성진이는 아씨의 후당을 눈여겨 보며 접근할 기회를



가지려 했으나 아씨를 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고, 성진  
이도 자기의 존재를 알릴 길이 막혔다.

그러던차에 팔월 한가위가 찾아왔다.

팔도 방방곡곡에는 명절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이날  
따라 임대감의 특별 본부로 대감집에 머무는 식객과  
문전선비들이 택견대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임대감의 안뜰에는 택견관으로 요란했다. 더군다나  
이 택견관에는 임대감의 무남독녀 외할 향이 아씨가  
참관을 한다는 얘기가.

선방의 적이었던 아씨가 참관한다하니 선비들은 멧  
지계 상대방을 이겨 아씨에게 환심을 살 궁리들을 하  
고 있었다.

성진이는 애초에 선비들과 같이 어울릴수 없음을 맞  
하지도 않았다. 다만 향이 아씨의 모습과 임대감의 노  
는 꼴을 지켜보며 복수할 계획을 짜보려 하였다.

시합이 버려지자 대감내외와 아릿다운 아씨가 나오  
고 선비들은 신이 나서 옷통을 벗어 채찍채 이리 휘고  
저리 휘며 있는 힘을 다내고 있었다.

성진이는 뒤전에 서서 아씨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  
보았다. 과연 보기드문 미인이었다. 성진이는 생각했다.  
『내가 옛날같은 지체였다면 저렇게 예쁜 규수에게  
담슴에 청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이제는 한낫  
노비에 지나지 않으니……』

성진이가 끝물히 생각에 빠져 있을때, 택견판은 절정  
에 달랐다.

마침 한 선비가 택견판을 독차지해서 감히 덤벼들  
선비가 없었다. 그 선비는 회색이 단편하여 『자 덤벼  
사람 없으면 나와라!』하고 으쓱대는 것이었다.

다른 선비들도 이제 기가 죽어서 서로를 바라만 보  
고 있었다. 택견이 이때로 끝난다면 너무 싱거운 것이  
될 것이다. 이때에 다른 한 강정이 나와 상대방을 쓰러  
뜨려야 판은 무르익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잠시 분위  
기가 쑥스럽게 될 즈음 『여봐라! 노비들 중에 저자를  
당해낼까 없느냐?』하고 추상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노비라야 다 늙고 힘쓸만한 노비는 없을 상  
싶었다.

성진이는 가슴의 뛰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의 지략과 무지로서 저 선비를 꺾어보자. 그리고  
아씨의 환심을 사자!』

성진이는 결심했다.

『여기 있으!』하며 뛰어 나가자 모든 시선이 성진이  
에게로 쏠렸다.

『저런 종놈이 저런 등치로 어디라고……』

하나 몸매는 작았지만 남 몸매 빨아온 집술과 무도.

특히 태견은 자신이 있었다.

한편 임대감은 자기네집 노비 가운데 저렇게 대단하  
고 수려한 장정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몰랐은 것이고,  
아무튼 쓸만한 늬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과우지간 태견판은 활기가 들었다. 누구보다 대감의  
아씨가 좋아서 날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비록 신  
분은 노비였지만 저렇게 마음에 드는 장정이라면 꼭  
이거 주기를 바랐다.

성진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등치큰 선비의 공격을 피  
해나갔다. 등치큰 선비는 수세일변도인 성진을 앞잡아  
보고 마음 놓고 몸을 날린다. 성진이는 날려오는 선비  
의 육중한 몸매 날째게 앞차기로 응수하니 급소를 맞  
은 선비는 그대로 나가 덩굴이 떨어졌다.

장내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더군다나 대감내외와  
아씨는 기분이 몹시 좋았다. 지략있고 용감한 종놈이  
등치 큰 선비를 넘어뜨렸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말이다. 해서 성진이는 대감 아씨에게 자기의 지략과  
사내다움을 과시할 수 있었다.

이래서 향이 아씨에게 경군할 계기는 일단 마련 되  
었다.

## 들만이 秘密

한가위가 미칠 지난 저녁.

이날도 성진이는 행낭채에 주꾸리고 앉아서 향이 아  
씨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이른 아침, 성진이가 앞뒤 틀을 끌고  
있을때 향이 아씨는 틀을 거닐며 성진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었다. 그럴때마다 성진이는 아씨를 몰래 훑  
쳐보고 마음 속으로 사모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었다  
밤이 깊어 갔고, 향이 아씨에 대한 생각에 안절부절  
을 못하던 성진이는 삼경이 되면 아씨의 방으로 달려  
가기도 굳게 마음먹었다.

그 날밤 삼경이 지나 성진이는 후당 문앞에 이르러  
아씨를 불렀다. 문밖에 '후죽신' 성진이를 본 아씨는 반  
색이었다.

그리하여 성진이는 아씨의 아늑한 방에 손님이 되었  
다. 성진이는 마음이 점점 당돌해질름 느꼈다.

『저는 한가웠날 아씨를 보고 이제까지 사모해 왔어  
요. 그래서 당돌하게도 아씨방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진이 잘았어. 나도 성진이의 남자다움과 민첩한  
행동은 그만 반하고 말았지. 정말 노비가 되기는 아  
까운 사람이야. 아무래도 성진이는 어떤 내력이 숨  
어 있을것 같애, 어디 말해봐』하며 성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성진이는 용기를 내었다. 근엄하게 얼굴을 들고 향

이 아씨를 바라보며

『저의 부친은 임대감에 의해 억적으로 불린 김 안서 대감입니다. 아버지는 귀양가서 돌아가시고 가족은 태극박산이 되었지요. 저는 원수를 갚으려 원수의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임대감의……』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씨와 저는 원수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맞나 사랑해야 할 운명이 있을 뿐입니다』

성진이는 아씨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성진도령! 이 무슨 운명의 작난일까?』

그후 두사람은 삼경이 되면 후당 아랫뜰에서 서글픈 운명을 달래며 사랑을 불태워 갔다. 그러자니 성진이의 복수에 집념은 차츰 흐리지는것 같았다.

### 홍처년 열쇠

그런지음 성진이는 부친의 동지들로 부터 지령을 받았다. 포악한 임금 광해군을 모던 모월 모일이 끌어낸다는 거사였다.

성진이에게 주어진 임무는 병조판서인 임대감이 보관하고 있는 병기고의 열쇠를 훔쳐내는 것이었다.

성진이는 다급했다. 실수없이 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씨를 이용할 도리밖에 없다.

그 날밤 성진이는 아씨와 맞닿 자리에서 비장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향이 아씨는 이제와서 저를 버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뼈에 맺힌 종 성진이를 도와 주시겠죠, 네?』

『성진이는 내 남군이야. 우리는 이제 성진이의 종문서를 불태버리고 길은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오래 오래 살아요』

『아니야, 나는 아씨와 도망가기 전에 할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해야만 나는 함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대감이 갖고 있는 병기고 열쇠를 몰래 꺼내서 저에게 갖다주는 일입니다』

『그런 나는 성진이를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불효역시……』 향이 아씨의 눈에서는 구슬같은 눈물이 흐른다.

『향이 아씨! 제발 부탁입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저는 게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겠습니다. 자—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백년을 삽시다』 둘은 부둥켜 안고 몸부림 쳤다.

사람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다. 성진이는 향이 아씨를 믿었고, 향이는 성진이를 위해 부모를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다.

드디어 성진이가 거사를 꾸미는 성대감에게 열쇠를 넘겨야할 날이 닥아 왔다. 성진이는 밤이되는 것이 두려웠다. 설상가상 임대감은 밤이 늦어도 궁궐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다가 날이 밝으면 영 일은 틀려버린다.

그러나 이 때다. 임대감이 술이 거나히 취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어떻게나 술을 마셨던지 정신을 못차렸다. 성진이는 아씨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말했다.

향이는 사모관대를 벗어 놓고 잠이든 아버지의 얼굴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아무렇게 놓아둔 사모관대 길속의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성진이의 손에 '넘겨주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성진이는 향이의 울음을 뒤에 두고 남대문 동쪽 교목나무 밑의 검은 복면을 쓴 사나리들에게로 달려갔다.

『성진도령! 수고하셨습니다.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사경쯤 우리는 병기고를 열고 칼과 창을 꺼내어 병정에게 나누어 줍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전에 우리는 궁궐을 습격합니다』

『자! 성공을 빕시오』

성진이는 짐으로 돌아왔다. 대감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아! 그러나 향이는 향이는 아직도 흐느끼고 있지 않은가?

『향이 아씨! 울지 말아요. 이 밤이 새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것이요』

『성진이가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대감님은 부친께서 겪으신 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안방마님이나 귀여운 아씨는 나의 어머니요 부인이 되는 것이요.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오. 그리고 동창이 밝아 오길 기다립시다』

성진이와 향이가 흥분과 서름에 지쳐 곤히 잠이든 사이에 동창에는 뿌연 먼동이 비쳐오고 참새들은 우짖기 시작했다.

성진이와 향이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 정안은 벌집을 쑤신듯 발작 뒤짚었다. 그리고 때는 점점 붉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 昇段審査合格者

1972년 9월 10일 이후

장효성	유영은	윤기탁	전재승	안대의	권승구	김정인	안창모	조민규	노태용	김성윤	이 경
조창익	박승배	김대형	김택환	강대덕	윤부들	김양현	안 준	박주섭	안정식	유창진	김 영
이병술	김영환	이종태	정상규	김대문	김재홍	최항호	유신영	정재민	최환동	최성재	김동휘
우상호	김지현	강원석	박시성	김광호	장치원	이근호	박대신	조 훈	차용진	우태진	손익식
권승오	김기동	김우근	박재영	주환섭	김병규	김성철	이동환	윤인규	배성복	신영철	백중호
강길수	유기호	방준우	이영동	양영곤	김진규	신활균	김성규	김 진	김계덕	박중언	이무홍
김종필	김희중	박희석	임 절	이윤희	정순백	박연조	서종욱	조형태	박준환	김주표	안영식
황인철	이근배	엄병우	유선열	조성래	정배인	서정내	정태섭	김종환	변홍민	허성용	진익배
황규정	남영주	엄진태	박병열	정상오	오영조	노창현	한철오	전윤배	김병기	김호기	한 취
홍성연	김홍석	이광수	이 립	이상용	박승언	이종찬	김호주	허성욱	황승필	황승원	김진환
이상화	장옥식	김종리	김익규	배병주	박영석	한동철	윤봉주	장주덕	박정권	이종덕	김환용
장재성	강승구	유용선	이병지	김문식	박기홍	김태구	김용배	정동주	이수천	최병찬	이종화
최하영	이영기	김지화	강종현	김상현	박종진	허필수	송화무	황치수	한애숙	이해진	김상욱
김형찬	이원일	윤재기	김영국	이원수	최성일	유태남	이완우	이수원	조소환	강주태	여진호
금지우	홍승복	한경석	김인희	최화순	송영찬	성승재	강정수	오경린	윤태환	김홍만	서재형
최 승	박병기	우창섭	이종국	김형준	홍영수	배명성	양희규	오영용	강영만	김홍필	박현민
허 준	전희철	정기용	조준환	조검계	강종형	유동근	고광환	문태원	장명석	오강익	장승용
박상학	김종근	임 학	이상업	정선호	김희철	나하주	안 ,활	박현규	양인수	박재복	박학기
최지학	최남용	김광식	양동호	부두봉	추동화	남일현	이치용	한재천	김 민	노병은	김 혁
임태균	임익균	최재승	임영근	양재훈	양재서	권철우	강희성	김현준	이진용	정윤모	정철용
박영만	최광수	송용규		김정만	정진홍	손인옥	나문수	윤희조	JOROME HE-BBOENS		
<b>中央(72 9 30)</b>				나건수	백남득	황승국	박철수	김세원	박병익	김윤근	이수홍
장광진	이재용			허수보	백남철	박진수	황승근	이정석	오경중	유 형	이동규
<b>Moon young Jung</b>				박병수	오경환	고광철	이강수	김동일	신정혁	신필택	박성수
김보식	유영기	김주환	오인수	강증익	강사겸	김창배	서상창	정승수	전중경	이인상	신규홍
노대식	김형석	조용준	고명호	한동섭	유인태	김광호	신영배	윤상식	박병규	양창원	김영식
최경진	조경석	이정철	조유환	문윤식	하상범	박현우	이철수	<b>결기(72 10 15)</b>			
허현수	EGU YEN BA NAM			조홍배	이동희	김중훈	엄자환	이종국	최원석	박중식	한동희
<b>NGU YEN JOHN</b>				박기범	김종택	조원철	김성환	김태의	김태형	임운선	최한선
<b>부산</b>				이진환	전우승	백승호	전걸수	신우광석	한상호	오봉규	유재환
신종호	조청희	이종민	고태범	정두경	정성문	윤경권	우태길	문병욱	김동수	최춘식	이성우
김화수	장치원	최지홍	이학용	이영진	이형진	박경준	이근철	임운경	정영만	배영봉	
공진호	박 철	허태영	이규영	김 철	양인석	박명진	고성봉	<b>강원(72 10 15)</b>			
서상범	박 중	김홍규	정태오	김영근	이지은	정태복	양재영	김병경	이강운	김영표	김영보

한정훈 박병천 최준영 김명수  
 정철수 이동명 정동수 심운용  
 김보영 김용필 김태용 김세기  
 홍영모 김재진 정문교 김광배  
 이지영 권혁민 황규영 한광수  
 조영준 이재호 전성욱 천은상  
 윤조영 유서호 이성석

**전북(72. 10. 15)**

김종훈 권승은 원용연 이영호  
 신상헌 임병하 황상수 권학주  
 김이관 이강희 김강수 백철연  
 최재선 김창기 김은철 박용환  
 김무성 신상철 김종현 심진식  
 김경수 최태환 강명석 윤경호  
 강명진 함은경 정성일 박태수  
 박창호 김창호 우재욱

**경기(72. 11. 12)**

임인재 김영재 김윤복 우무진  
 이상곤 양원모 정주남 박승학  
 기철스 박재곤 이임호 김규범  
 팔종혁 최재길 이정석 박승범  
 강태명 성보경

**경기(72. 11. 19)**

정준철 엄대유 김정배 유필영  
 박용재 황학순 박용하 진수동  
 박덕일 최철화 김진석 이재혁  
 유영권 최희영 최덕일

**CHARLES THOMAS**

김창식 장한수 이종근 계갈순하  
 박의준 박준일 황원동 공일진  
 노재영 송석봉 한길식 권희국  
 정병돈 박순규 공옥자 권희주  
 안선자 이정희 김명백 전태숙  
 이광자 김영숙 박원근 이명선  
 오광근 진현성 유용관 신규수  
 지오식 심일섭 심문식 김윤수  
 조종남 오세희 이원재 이주원  
 김강철 임종구 이광재 오연환  
 오세분 백덕기 김광수 이걸상  
 장이영 백원천 홍성수 노민우  
 김명복 임중환 임병관 김은우  
 권익혁 신준일 안대석 박수찬  
 이석윤 정 철 최기영 김걸천  
 박승환 박동근 황영민 황영걸  
 이재원 박동준 유무성 강인철

오종익 권용화 김승환

**中央(72. 11. 30)**

한만복 추연홍 이계호 김용환  
 이세인 최인길 유홍구 김경수  
 김정하 이만석 안태호 김남구  
 김종국 박용환 허철원 이은봉  
 이종태 정기영 김경태 박왕은  
 김정현 김경태 김순형 박원일  
 최명식 최원길 李在愼 신재성  
 안창우 김종명 천우영 배일수  
 권용천 이병권 이상인 이종우  
 남궁선 남궁제 노준용 김영구  
 장덕수 유승환 고정석 이만성  
 고현태 김동훈 김현중 문영용  
 조명철 전동내 강원식 고연곤  
 채윤석 강찬석 고기현 강금성  
 전호용 윤주선 우석희 김영극  
 이성태 최재호 정재영 이판석  
 박근제 여민상 최철훈 이남규  
 임윤택 김영민 이재성 한만철  
 한영석 박순덕 김찬호 김한철  
 정해식 이한기 김순중 최대식  
 박순규 김지복 이가운 김덕필  
 김연준 박지풍 박태영 김기천  
 김재근 문경식 구재진 시종ભ  
 김정현 이종호 김영훈 김 딘  
 추교철 박인준 이상근 김영일  
 장학성 송정환 권오선  
 엄경호 김원한 남상길 이상연  
 정필수 김희옥 송태용 김호준  
 조성호 오근호 이진호 이준근  
 홍광식 유승준 심재인 이경미  
 하재성 김홍근 안병태 김정동  
 김철익

**中央(72. 12. 7)**

최태현 박정수 이한영 김진환  
 박영욱 최찬영 이윤철 홍성열  
 송명득 조성인 이원기 조성현  
 박도준 임희택 이성신 권태용  
 조종기 유민상 백조석 박종환  
 김동운 주희식 노승동 홍현익  
 박민수 김광수 조동윤 정인영  
 노영연 권오형 백서원 김영극

조왕용 김순성 조성환 윤성환  
 홍광표 안석현 강재곤 성도현  
 홍광식 김지호 이덕춘 이명준  
 김석방 박상규 허 승 강승학  
 한명규 이병우 김휘성 박승민  
 신일수 전인수 박정현 정오근  
 강두혁 이형순 김명호 최순규  
 최승극 이승철 김창성 송종환  
 차정만 구봉근 이광수 최승필  
 편재범 우태윤 감대지 명로우  
 최영철 박완용 김성원 안대순  
 정 철 김호성 이상신 김성욱  
 김달현 도병성 이병걸 이경상  
 김용구 김광중 윤원문 윤성일  
 박종준 김세운 송찬희 이동우  
 김영우 이명수 김 훈 조경태  
 김지홍 김삼동 권순조 박준상  
 김대희 이우승 우영우 정일환  
 임성범 윤두현 최경학 유용勳  
 김영남 전석운 임상郁 김성준  
 송성철 전철우 황우진 홍기훈  
 이동원 안재구 최승배 한경식  
 민동근 홍의식 조규혁 한대서  
 김진일 최창경 박진기 조성일  
 김재성 심철민 조영람 김준영  
 신조열 박만기 방영철 김한복  
 허지행 이세열 박승명 정민석  
 김안동 신영호 한택희 송기용  
 김재우 원종석 백우식 이준원  
 김 훈 김창현 이은규 박노현  
 김환주 서계현 권재현 권재익  
 임현우 김정학 박 현 이재용  
 김진업 조성관 김승배 조재묵  
 정진섭 김보연 김희철 이근범  
 김광희 김진형 윤정환 윤용덕  
 박지호 이한혁 조병철 이동욱  
 정남규 박원찬 권승용 임석호  
 김병학 고길수 신기홍 지영  
 이경현 김승동 김상훈 이영상  
 박재홍 조영동 장영관 김근수  
 김병복 채인범 이대훈 박종주  
 박교범 김학범 김현영 정상재  
 이학태 강형주 조성진 채기양  
 최기섭 박수철 임재영 서주열  
 김창구 김세환 이원형 김경수

이명철	방기용	양육인	방유남	변성군	백홍진	김선홍	신범용	김병주	황진현	이세종	정용종
홍인철	박수영	임주영	정용진	신영식	김영인	마동근	이철수	최우용	홍성용	김종수	김규현
안인철	황성호	최경규	지순복	양광진	김건화	한무덕	엄석호	김기환	정두주	송환선	김창남
허의석	염판수	황진순	허육철	정재용	이우영	정수용	신용철	박용수	김원성	송수선	김지태
김순구	지경순	김순원	강 민	최 현	이종효	육근원	임석민	정성만	홍준화	송민선	이승일
정무정	두춘수	김 철	배서민	여상원	김형열	함인석	조병무	최영천	계용운	신광준	최용식
이재근	장순국	박홍식	김진근	유두신	정운곤	김호균	강태환	엄득철	권태성	윤우식	김현승
김인석	이승태	박釘수	조향태	곽영진	윤창구	주봉락	한정수	김태권	조명준	김순형	김영식
오상근	서철원	장찬순	곽 신	김운용	윤재현	연재민	김준수	김윤현	박인용	박용남	남정모
박찬구	황진호	육철주	양연철	정용재	이종우	이병일	백원찬	박병호	유성현	김경재	박진규
김병철	장서철	김동환	최유신	이기준	김정운	김승서	곽원서	김덕영	이재훈	방장훈	나병곤
심훈식	정재원	김규식	엄재환	김성문	김성환	백승범	이현재	박호천	정광훈	위상배	강인원
박태훈	박서우	신정호	민기현	윤배원	김기광	백승하	이준호	서성택	배성수	이상환	이상용
최태원	최경길	박태관	강영복	김광식	견광환	박 철	임남식	이영창	권용중	임성주	김성가
김영철	김정호	정동성	정 택	김문수	정근호	조걸욱	이규재	조석환	정재용	민문기	박필훈
현무수	이표열	이남원	김현종	윤유중	이경석	김광화	양선서	이원연	한병훈	윤태로	손석진
박용성	이창호	장길수	김승철	신태황	홍인표	이 훈	김태원	윤경로	전호권	박용선	차기호
성광재	최희식	조율희	유승철	송수환	민준기	강동혁	오원길	최규현	차근식	이기종	김태준
박찬규	우성구	김영대	김태준	김서태	최인영	이경돈	최병재	박태홍	병가우	정성열	윤정식
설영수	안승원	이입문	김강환	임 한	이덕재	이상환	이한호	나상훈	신현승	최철배	박대선
김수한	연철흠	이용득	김종성	김학재	김영호	임우택	김재희	박종욱	차기영	이정수	정상규
이영호	유승우	정 찬	최서현	김동균	조세웅	박태원	윤주철	이동열	김현웅	지강현	손용익
오상훈	김철모	이연균	이득욱	홍기호	이병준	윤갑수	김경지	조치관	윤재욱	김철지	이상달
민병주	박동찬	김형석	이종현	김성재	강대인	이정수	마효신	이성철	윤용훈	김인섭	김명재
고승환	신현구	최원철	김진수	안홍섭	유인섭	유동수	김현구	김삼구	송용근	이현호	김병일
김용구	홍태화	강형욱	최경주	임재혁	최종원	오익환	서재갑	김구만	박재국	오세현	신인균
백성기	이정재	노재범	강보원	이상수	이병환	박규항	조성훈	이동식	이정윤	이영섭	양재호
이재형	배진철	김진형	이강열	이성태	이병국	홍성학	김철호	봉정철	송순영	박정석	김지하
이동하	조문승	이민호	이경수	이정원	이진용	오취엽	권영석	박승호	김태용	김상덕	박종범
문경민	이호연	선우용성	윤용상	조민현	배일환	박민호	이진호	조용상	이재성	신창수	오문식
김홍재	현용우	이시현	박찬시	최원일	권영환	김영주	정영조	김희환	강길호	정진삼	채경수
김효일	김상노	이종기	이병성	김덕중	연백흠	박기희	신강혁	문재신	손화진	오경환	전인상
송준혁	변종호	오선하	함영세	김순용	오인철	변희경	백학림	박지훈	이대성	박성호	주용환
한재용	송금태	손영오	서규민	강택길	유태천	김승기	백봉림	박용규	이기철	이우선	이강만
황일주	조서형	이홍재	김해민	이덕재	김성한	이재원	이병중	헌동식	안권태	김정용	황성삼
별광식	전강표	김재철	이준성	박상일	주주현	황진원	이근배	신종근	김종진	이승주	신호근
최지환	강대일	김진형	김인수	이재봉	채 원	이승현	김영생	정세환	김황기	강문서	김준희
최명근	최준환	김진백	홍승환	김찬우	김길삼	김도원	안성균	신우종	홍대식	강인식	김상공
최종걸	박민영	정준영	장우석	박성원	안현정	유충선	장문수	황영모	전명수	박정윤	이정만
이지행	이혁종	정 현	김순필	최병갑	민보현	임철완	임선목	엄성섭	황성근	권오진	전완백
황두성	박명자	이동호	한종유	최진수	유태원	박준식	박호석	이찬우	김재곤	최영진	공원진
김우석	김성윤	이재원	이상문	유종근	이원재	손미향	김영호	최영식	황재민	장서철	조성익
김성재	이재명	정 권	김상중	박용호	박용진	엄영철	김리라	권용범	조성구	고재천	정창서
심현보	조광주	이정구	김태완	정종원	문대진	김병삼	정용원	김석우	손영태	김성용	송준성
남세현	원철일	이동수	김광수	전용일	국형석	박진수	임흥근	김기춘	양관길	곽종관	양불규

정장표	박경태	이태연	변한주	이철훈	이진우	양상훈	이병용	손성민	김덕경	조명호
여상수	권일용	오인숙	신원철	이상욱	윤영열	김진수	김동우	M-CHAEL	KARL SCHRE-BER	
조영식	홍성훈	추갑철	양일권	박영철	유재진	실별수	남태호	권오석	이춘우	이근원 이재수
양국영	신용훈	유광연	정찬호	권병주	신용규	양택진	문인태	김래진	신옥동	김상현 임복태
이기철	하지호	이태연	오원철	석환준	박상경	김오갑	나인규	홍성식	강성길	강신상 박종태
임호석	나용철	서문영	오상근	김양지	이승우	김진우	전오중	김영자	서영희	김영일 예병민
신현식	김현라	박종인	김형재	이인철	조석수	김기철	김재은	박인환	김순기	김수중 강영식
홍순아	김재원	김용수	김진현	박덕수	서성기	김상백	김중석	이근기	한영훈	이동일 주창규
박성향	박찬희	유재영	김지현	정종술	이영배	장길남	강형진	주상규	송동욱	정찬용 최윤서
백종태	이병기	김덕술	박종윤	김봉서	이영식	권숙자	정영훈	이동인	임홍열	박바비 서동식
김성권	이재진	김영서	김세진	이준영	최재경	이 호	김창수	김옥희	강서균	김종학 김대영
김삼용	김춘동	최승찬	김유택	김성곤	이정현	문재연	하인섭	조성권	전준영	홍복기 이정훈
김재민	주현구	강홍열	배종산	김근규	이주홍	김광재	이창엽	이범시	조창호	양명규 강인철
박용승	홍성민	정봉주	신영진	양철훈	김용만	김한철	김재민	이중서	이기봉	김 영 최홍근
박용신	최종호	최종인	이승수	김철민	김창학	이창환	이경남	노재호	장윤주	김동영 김복열
신종호	김동영	이동주	장승수	김동수	유주봉	정찬관	최수연	이상태	홍순문	김창현 여장현
정찬욱	신호선	서우석	전병환	이철용	만현식	홍광문	전창섭	문창민	남기석	문창용 이상혁
감상욱	송인진	최병진	이성훈	한창훈	정종학	김희주	정태복	김명학	김귀정	이명재 이현규
곽상경	곽윤수	김지영	박창규	임정호	정재훈	김필성	박영재	이한희	송병진	정병욱 안호원
서정국	신용수	양기수	김갑동	박성만	서영진	박종철	박춘선	김승지	이철민	윤휘용 김봉환
문철준	구정봉	전기성	정병학	김지호	박성식	김창호	박병서	박경완	이경진	홍준기 김광현
이준규	신성철	김남웅	최진수	권종현	김영학	손성립	곽찬규	서영준	이광용	김길호 장준배
윤상순	김기영	김대일	최석천	허영호	이재인	최문호	이종욱	김재학	우기훈	이병국 이상훈
조용근	김대선	박오현	김명원	이진우	현종현	장운태	김기용	김홍철	박정호	김성호 조성국
고승철	박찬식	양원석	윤재우	유규현	김광욱	조정규	신영서	이봉일	조원근	조봉근 손효용
장한배	박성진	이형식	배희봉	하인진	석만식	이승우	김동규	나영일	나현훈	구본복 공보근
정명용	김경수	배민주	홍진표	이영우	이남호	강계문	강계용	김지우	정병규	김학규 손도영
이종훈	권세봉	정기부	정상범	김일근	한단두	김문서	김문서	정승범	오우현	황인철 이규환
한정윤	문현준	이홍기	김영준	김문성	강승균	하준호	변오재	황인국	남도원	김완용 정연탁
한지홍	김유성	최태수	김종일	김진규	이덕행	구대영	오창훈	이승열	정영표	정성태 임정훈
김철호	신상원	박규봉	박정선	신기수	진영용	백성규	정태기	윤여경	정진서	박철승 김현배
이원재	이창재	이성훈	권태원	홍성표	최성근	김재진	최상용	정진봉	하명선	신학순 조용원
유시형				전익찬	심종욱	진경호	황진섭	허용우	박도진	서해동 송광섭

**부산 (72. 12. 10)**

박동수	박동언	박동규	최승세
임성규	유기영	김관호	탁판영
최우영	전경일	이대규	최재걸
권신백	조용희	김정원	최상진
장화진	조성호	정태환	양승국
김상은	박진홍	황세현	박정은
김정일	최세열	이영종	최승진
박태원	김종민	양정훈	박준영
박태영	장재훈	임철우	이영주
배두원	김영하	최종선	박효현
백재원	김대열	박용용	이무용

이철환	이진우	양상훈	이병용
이상욱	윤영열	김진수	김동우
박영철	유재진	실별수	남태호
권병주	신용규	양택진	문인태
석환준	박상경	김오갑	나인규
김양지	이승우	김진우	전오중
이인철	조석수	김기철	김재은
박덕수	서성기	김상백	김중석
정종술	이영배	장길남	강형진
김봉서	이영식	권숙자	정영훈
이준영	최재경	이 호	김창수
김성곤	이정현	문재연	하인섭
김근규	이주홍	김광재	이창엽
양철훈	김용만	김한철	김재민
김철민	김창학	이창환	이경남
김동수	유주봉	정찬관	최수연
이철용	만현식	홍광문	전창섭
한창훈	정종학	김희주	정태복
임정호	정재훈	김필성	박영재
박성만	서영진	박종철	박춘선
김지호	박성식	김창호	박병서
권종현	김영학	손성립	곽찬규
허영호	이재인	최문호	이종욱
이진우	현종현	장운태	김기용
유규현	김광욱	조정규	신영서
하인진	석만식	이승우	김동규
이영우	이남호	강계문	강계용
김일근	한단두	김문서	김문서
김문성	강승균	하준호	변오재
김진규	이덕행	구대영	오창훈
신기수	진영용	백성규	정태기
홍성표	최성근	김재진	최상용
전익찬	심종욱	진경호	황진섭
김근철	심승덕	박호진	김동우
하봉환	박광용	박강수	차재홍
차재환	정순갑	백승호	김기준
한영진	파하창	최종호	박관수
이 태	안우석	최상돈	최상철
박성환	왕한임	신종식	양철수
유택봉	박홍근	한성호	정철효
오세웅	윤정식	한종진	권세욱
신동광	선봉훈	박진상	김봉석
문성업	김택우	서영수	정덕영
황장홍	곽준근	김희준	이학훈
김 용	심 영	유한우	박병지

David Alexander Mr Reynolds  
George. N Sawter Jr.  
中央 (72. 9. 10)  
전세찬

**충남(72. 12. 10)**

정연학 박남규 강현구 허승세  
 김현철 박성우 성연덕 홍기은  
 이상갑 박수항 심원식 김종선  
 이장열 김철기 이조영 윤대화  
 이종섭 이호섭 김현호 신동수  
 이상호 이진호 이윤권 김현태  
 김기웅 이기욱 이인혁 이동욱  
 신동일 김영기 서상복 유남규  
 유정규 이재도 김창희 명상우  
 김중수 구본원 조순복 서승원  
 주영규 김원희 김종덕 권영원  
 한지원 안종준 김용규 김교섭  
 안재성 황준문 강우홍 손성범  
 김영철 추광호 신경만 이문서  
 정경택 이병욱 이영철 김성일  
 김승진 이황규 조한인 주창용  
 주병윤 강병훈 권용준 송택섭  
 서원근 이병규 권용우 한희영  
 이인섭 김유상 권우우 오창열  
 권용용 박재근

**충북(70. 12. 17)**

최만수 배산돈 조항주 방춘식  
 박봉섭 신민영 김영희 김태균  
 이윤상 나계오 고준선 신동수  
 연승용 이상우 김의식 김병주  
 최성원 이병태 박종환 김병수  
 김창세 최래영 윤덕춘 지용안  
 조영철 김규진 장 옥 박세용  
 조양현 이범영 채홍기 민성기  
 남향호 남성삼 유성수 황규남  
 장성균 신덕수 신광용 박현순  
 김덕장 서병석 박종두 홍성훈  
 김진영 박종태 김동식 조성기  
 연규현 변덕수 이원배 이종열  
 강동범 조재윤 반명섭 이한수  
 김용태 박용만 전창기 연규택  
 정태수 박성도 정 민진 김남철  
 박준근 김영환 박종태 이강근  
 이재중 심영지 남윤규 이윤택  
 민철규 권병철 김태수 이창규  
 이병일 김태용 최윤기 정태원  
 장 춘 최재원 신동호 심오용  
 안희백 최중선 최정호 권영민  
 김영환 윤광섭 노준호 박하용

윤필상 김홍범 김진배 장학순  
 이용환 박종용 김종보 양승덕  
 유극열 한인덕 이진우 주장호  
 신영식 임종현 민경출 김광현  
 파악영 배영수 권지순 김정배  
 김해운 진성봉 이상태 최외규  
 이수영 정재남 김가영 최종선  
 박종훈 김기윤 배영구 유근실  
 박종택 한창희 배 열 김봉섭  
 정지상 언도호 조병관 성낙규  
 정창기 안도성 구재상 안광복  
 김덕기 김연수 강성문 조항원  
 김윤일 연규성 서광용 정강용  
 박과규 최동욱 박인섭 진기섭  
 홍종현 진병선 송재철 민병덕  
 오병욱 김진희 신동호 박익태  
 김종화 조항준 김영식 이인원  
 이종호 양재서 김용균 김범식  
 최동섭 임현빈 김동일 김용관  
 심학용 박성환 이완호 최재무  
 최찬우 이홍근 최길진 최길규  
 여성기 실재철 박용식 오형근  
 이한준 조창환 홍재준 신주영  
 김용성 백민현 홍대의 유병태  
 안성관 김동룡 임규형 유병태  
 유호윤 김공식 신영섭

**경남(72. 12. 17)**

오원길 이 혁 김재용 양남진  
 박준오 주세돈 손록현 박해구  
 손용주 양재훈 한진우 김희생  
 임식화 남승일 장선일 이희정  
 전명화 최종호 최근수 유인규  
 정 인 조중환 박현빈 고병조  
 이정희 이순식 김양수 오문세  
 김진상 제성무 유시봉 김용국  
 김영국 신정진 권용민 이선민  
 김태규 강석진 김병환 유진명  
 이성일 신동찬 하광욱 유일영  
 정재교 안철운 김영희 양광희  
 유기연 장영일 신현곤 신현득  
 박종호 김기세 권세영 신현득  
 임철오 권세영 김동원 강휘준  
 전국일 이창선 우충아 편광수  
 이덕윤 황규환 박경오 이은수

이운일 진동재 우승조 이정국  
 김종박 김동억 이기환 노준민  
 오수송 손찬규 인재형 김영철  
 신화규 서정만 유만현 이범호  
 고상배 유재덕 김재민 김상기  
 유재동 유동열 김윤택 유재용  
 홍희찬 김주환 최창환 박재완  
 이정락 박지선 지철환 홍문영  
 노창영 노창립 유연도 안수용  
 신준섭 유병규 이종목 유재덕  
 오경서 안윤기 이강우 송광진  
 이계진 한동업 한광선 김이호  
 최동규 이규성 홍종철 이동초  
 양정일 이강욱 고창태 황용진  
 박범철 노영학 이병우 정영훈  
 임승환 모정근 김덕수 김정수  
 김재문 파준기 한동섭 김윤태  
 박창현 이창규 홍태방 이철

**江原(72. 12. 17)**

전덕수 명노준 김중우 김병우  
 엄창환 이상근 안운선 강남영  
 윤석현 이상석 이웅섭 장성호  
 방정환 배지용 이희준 정윤식  
 김병돈 한정관 강인철 이찬규  
 이종호 손동우 양기원 박태오  
 윤석범 정재훈 김재동 정동시  
 김상서 김용영 함창식 김영국  
 방무수 박용범 김중섭 김 경  
 정태현 박기성 최태우 태승용  
 홍시준 이장호 김 인 이세후  
 권선일 박병일 김춘산 남보근  
 이석우 정효영 유형준 유재용  
 홍순석 진교범 김영욱 박승균  
 고경수 이경노 김덕용 허근욱  
 권동원 김남원 이영주 김근배  
 최홍서 최두호 김성준 김미현  
 송 단 김형영 안영훈 이재선  
 박창호 정용만 타정훈 박근근  
 이용욱 박희수 김영옥 김정숙  
 임형택 고윤상 박완록 김영식  
 김공수 오경환 김준권 심용태  
 김광식 유재선 이재영 김명수  
 추사원 김영재 김재성 조정호  
 구자영 김인수 김형보 김동수  
 김인중 함상봉 박석희 임병훈

이항재	정부권	조정환	김재훈	이창규	박일석	오동영	조한규	이승철	이재현	신동욱	김선범
허영무	박인석	이상철	김준호	곽판완	최창수	김병덕	최광민	김진규	박광순	송판범	이승진
정귀일	방광일	이정재	박인규	임완순	김병성	박병준	박윤석	유상윤	손준호	장동국	송동섭
김삼용	박찬희	원사용	이종영	김경일	여동근	배서태	전익찬	안덕기	최인수	김진태	남경희
김태용	이준화	권준노	정승수	박찬수	유영식	채진석	고진후	유명철	신동민	정성재	한송교
김명호	권오인	권동혁	임호근	이덕호	손영준	민현홍	허용구	박진재	임경만	지현종	남기식
김기주	김윤기	허기완	김원휘	한경수	오현진	이영균	장호삼	최병국	김주철	연두식	김근식
김성철	김광선	차광익	정광연	김태수	정상원	이진구	조현찬	김기훈	경명호	이승배	김문수
오동현	최선성	김관호	신창근	박재영	신요안	김동식	오일근	지현국	이상열	이영기	남진태
김창순	오 성	이청운	이금섭	송인권	신봉식	강영구	김동주	정용영	정안태	최익기	김종식
김부현	박성길	홍광호	김순견	조부기	강진홍	김영희	구분명	유시명	이종연	박찬순	박영원
손동기	김영욱	이병재	안병선	이동준	박상호	최진철	김익환	김영준	홍배희	최수한	신상순
오세박	최용선	이병규	김승택	박상환	오현교	김용진	김동환	신범수	이종규	이상훈	김 강
한정남	김영식	김덕기	박명규	추교상	김재소	오기일	이기동	김창수	김경희	안진희	정 구
박광수	유현석	정병호	실용환	배명호	조성수	고종협	이봉호	김운택	노장균	박상민	김승열
이호철	김기판	김용열	오용식	우병원	최택진	조현창	최영태	김재현	신성희	박희억	유한수
이인원	은정호	김창복	원호섭	송재욱	유해덕	허희진	정동주	김기원	한진석	허관영	김광철
이용희	최규영	이재춘	한동현	이용세	이홍섭	박정태	유태종	이종우	이재환	김현철	홍현선
박광욱	김재덕	이상경	조병혁	이해경	방규진	김병점	최대근	박광희	김동환	이성열	김홍철
이선중	김대성	강택식	이명희	김영민	이우동	김중식	전연표	장재익	정우용	장우영	김지국
우진도	성학호	김원식		김영부	김기경	이상식	방동혁	오세영	서효린	김영국	김인섭

**전북(72. 12. 23)**

이재훈 허 근 김광철 한장수  
 안정태 최용환 한서호 이재철  
 유종상 김동균 조완섭 김성균  
 절봉수 정하용 유기종 이정원  
 안재성 김용서 우정국 이신희  
 이정희 천종민 김영환 이영재  
 이상복 박광봉 송영중 김태범  
 김홍재 박원규 황두원 김용하  
 신동주 송세명 원성철 유형석  
 실상보 모관종 정희춘 이장환  
 김윤환 박병태 김영호 이정신  
 최준희 장원범 박석순 정재근  
 유광준 한문수 한부선 이강천  
 문철승 탁 현 양근호 이복규  
 문승태 최수현 조충일 조주연  
 홍일표 홍기철 김중환 박성희  
 정철희 이승국 노민영 장재성  
 이종락 이상인 장철용 김홍열  
 장봉화 박성준 김성수 고대우  
 율문서 고무영 송찬호 박광순  
 김홍광 송무문 윤철중 이종철  
 김서연 황순영 심형복 홍환기  
 이홍도 김응희 이육담 김덕수

심일우 선우택 김기남 신영수  
 이선영 이재용 박상환 배원복  
 주강욱 박용성 유재술 장진호  
 삼장권 신인수 최재영 김형수  
 최준영 조연우 김대식 서길수  
 장승규 최환동 이안식 유근엽  
 명진성 김병수 김성규 김현철  
 이복남 안일환 박문부 윤종배  
 장서주 송동욱 이용권 조경진  
 박동영 신용규 김대환 이준호  
 하정수 이광행 이희재 김해용  
 이완호 이광식 배종열 김해수  
 윤상도 윤능규 유길하 건홍대  
 노기환 김양원 진영삼 박문희  
 김수안 유광환 김강윤 민동기  
 이영우 이기상 강두만 강병호  
 진용길 박동욱 석우성 민병천  
 이정호 김영일 이일봉 이석원  
 김지희 김영술

**忠北(71. 12. 23)**

이재덕 박단종 박용대 신문섭  
 정홍부 홍정호 김관태 유승규  
 윤갑순 이경수 이종영 박영훈

이승철 이재현 신동욱 김선범  
 김진규 박광순 송판범 이승진  
 유상윤 손준호 장동국 송동섭  
 안덕기 최인수 김진태 남경희  
 유명철 신동민 정성재 한송교  
 박진재 임경만 지현종 남기식  
 최병국 김주철 연두식 김근식  
 김기훈 경명호 이승배 김문수  
 지현국 이상열 이영기 남진태  
 정용영 정안태 최익기 김종식  
 유시명 이종연 박찬순 박영원  
 김영준 홍배희 최수한 신상순  
 신범수 이종규 이상훈 김 강  
 김창수 김경희 안진희 정 구  
 김운택 노장균 박상민 김승열  
 김재현 신성희 박희억 유한수  
 김기원 한진석 허관영 김광철  
 이종우 이재환 김현철 홍현선  
 박광희 김동환 이성열 김홍철  
 장재익 정우용 장우영 김지국  
 오세영 서효린 김영국 김인섭  
 최조진 김광수 이법택 박관태  
 김종섭 임재성 한대희 김진세  
 한왕수 이재선 여인수 홍성복  
 김태성 유광선 이기영 강은수  
 박항지 지순영 한태섭 이기항  
 최종윤 조승현 김태민 유법선  
 박태용 명원성 추광영 김종철  
 전호식 홍성근 이경수 김 현  
 김태국 유병준 안준범 황우승  
 김대환 조성훈 전유택 전유준  
 최병철 배동식 김영중 장광순  
 임준빈 김세호 함영호 전태순  
 강문호 김영식 이서호 김영민  
 임양수 안한균 홍익표 노지균  
 손명달 홍순재 심상수 김동남  
 박종민 박찬규 최성열 조용현  
 안재균 이명재 유동원 한구욱  
 조해규 안정권 이철원 주자국  
 서상만 장정용 박문삼 좌재환  
 남재식 홍순인 이관종 장재동

**전남(72. 12. 30)**

성재포 박수남  
 박동오 임대희 박병선 김광희



백현숙	박용현	송용구	한재택	김영수	이성재	한 쉼	김정완	정동수	장상우	이연하	김기수
이선영	서기범	김광욱	박기홍	이강용	이동훈	김동주	임갑수	김대현	맹윤석	김정연	최현철
이계성	최문용	강영훈	박득수	김기환	장태현	김용재	이재희	공성표	이철우	이선택	이승연
박동영	곽경성	유필영	유일영	이성용	황성철	신기호	홍태성	배수인	이현우	김종택	박희수
최규훈	임 용	오태수	이송현	심명용	이형우	장선욱	이승일	이보원	연만희	안재균	이동철
임재용	정희성	김남규	김성학	김광원	김종연	김종욱	김정완	장종윤	김종호	임준현	김종택
이동욱	김수철	송동수	정일기	채태일	서민규	조도건	최재현	심우서	김규원	김현우	제년서
김장권	신정철	경창모	박종욱	임명수	장상우	손유철	김재호	김광수	김봉호	김주현	이태환
박봉우	나상원	김은규	김점두	오경석	홍정식	오준우	김광환	김태희	한경수	장명삼	우상국
서대원	강요한	윤일현	오상철	박광용	지영하	권혁주	이기현	박동일	이상현	정성운	유종복
김재성	서광훈	서종수	장기용	조강일	태원호	조준재	장시연	최윤원	고진욱	권영준	김미자
정종순	신봉탕	양성모	김일수	임부성	양태곤	황의상	박영민	서대원	이동화	이종훈	박효기
최동남	러기정	김행남	김정욱	최상철	주 현	최재성	이주영	허순길	이성관	임희준	안종호
오석현	윤오남	정종훈	이재순	이재업	윤준철	김태웅	임윤택	홍국현	차수봉	기규석	김근철
송경수	차주윤	기기호	신태형	양준호	최준호	김재석	김형석	양정호	장승원	이찬호	이병미
송승호	이춘근	김대식	김운배	서용희	고병현	한기정	김윤수	김정환	성세정	원치서	김한성
이현용	김영웅	이 영	배기원	박용덕	전봉상	김중준	박준용	박성수	이경민	윤철호	백영숙
송태권	김선도	김병주	최남수	김로경	이상용	오태정	정지용	박상호	이시윤	임삼혁	이종길
정명준	김상태	유영현	김현수	황경배	하재호	허 서	구자일	이찬호	이현관	정용주	한홍관
정동윤	김재부	김용선	최진재	정우영	이병현	이제민	오태원	배지찬	이강용	배준한	노옥상
이도현	최정섭	이정란	김의남	빈서우	이정현	김재호	맹정호	김승배	김무송	임학성	김서은
전성현	권인용	강성갑	김장규	박상준	윤기석	김형석	김영민	이창윤	정태용	한동진	김민배
손민정	이명석	조성음	송태운	임경석	신장원	홍진석	서정민	최승복	최현주	윤 진	이건주
이정성	윤 영	김정식	전용만	한두원	박달순	전병홍	박병익	양태호	이성희	정영모	이승기
전호영	박종국	지일사	홍사미	엄경복	신승욱	김민하	김은혜	임호준	강우용	이재학	나오성
전상석	한상중	박동환	김광열	박기홍	유은영	박성욱	황병호	이상화	이형석	허정영	김도관
신명석	전용재	박기창	김기홍	김희겸	박환광	박영부	정우석	박영재	고광훈	양태석	이달용
노영환	송재화	한정훈	채정병	박효진	장상훈	임승운	정창근	김만영	강신하	이은수	김덕영
최경휘	이구연	한윤서	권인석	홍연표	오동협	이지완	김종관	한기호	한대서	김일연	오규진
김홍태	김병규	지일우	송영화	이재우	서현득	박상일	조경단	김창범	김남식	이성태	전병현
김병희	육창훈	이인우	김영택	김윤숙	차영호	김정철	김현창	김종훈	김경호	김종우	권영오
한영희				김승민	이경찬	이현도	이익원	이종혁	최종철	김용철	유병탁
				김광문	서민호	박원진	문희철	김종현	오창순	황병준	유재철

**중앙 (73. 2. 18)**

윤호진	홍종수	이정규	왕오성	김영수	이성재	한 쉼	김정완	정동수	장상우	이연하	김기수
박창환	김양수	최안균	김용석	이서병	남성현	박규석	김성기	김태현	맹윤석	김정연	최현철
정도순	신기철	이재운	이진환	이성욱	유지신	이수윤	임재호	공성표	이철우	이선택	이승연
오승훈	신은호	최동수	윤정환	이창업	김영석	조승재	유형석	배수인	이현우	김종택	박희수
현명순	임용준	이상훈	이원재	강병근	이세현	이상우	박연한	이보원	연만희	안재균	이동철
김영배	임인배	이태우	최진선	김병수	지용훈	김수한	김문봉	장종윤	김종호	임준현	김종택
김길용	왕가의	조의상	한대성	임원우	고승주	정윤용	황진기	김종훈	김경호	김종우	권영오
윤신용	이비규	신현재	이강현	장우철	한성진	김광수	안재호	이종혁	최종철	김용철	유병탁
함승용	한종수	박 현	임용운	최용수	홍창화	김지태	윤창수	김종현	오창순	황병준	유재철
강준식	이용훈	윤현중	이호준	정진석	양권모	변용수	정관호	김형구	최현중	윤우상	이승문
정현철	어달선	한승희	이종보	최국진	허 발	정형교	정일홍	양우석	김광표	정진실	김남중
이영규	박세신	나중운	이태희	정인수	안중환	윤태훈	서용수	최종남	천창환	김현문	박은호
								오상근	이강원	이상수	김남균
								이인모	장영호	오규장	한대희
								최봉기	서 탁	정승천	김성희
								박순민	김성서	김용태	정희진
								김종복	이관우	이기원	박근수
								정성철	유재신	이승우	이병철
								김용철			

**京畿 (73. 3. 18)**

김병배	하조용	김수명	신희준
-----	-----	-----	-----

장경환 정영광 이주희 신성수  
 김연신 한명희 이강일 임희동  
 최재준 유근수 박광식 김경수  
 서봉교 고홍철 박종근 차상운  
 김경민 정찬석 최귀희 신석철  
 고호철 한금희 우종운 허 승  
 김현용 신오철 이기정 박시용  
 김성복 서수현 김영석 배정진

**忠南(73.3.25)**

장복모 이경근 봉익균 조경행  
 황경식 김라정 박영희 최명철  
 김동환 최정신 이봉환 김경술  
 김성영 박동서 최근수 박춘성  
 김대환 유영준 조남용 최정규  
 김용섭

**江原(73.2.1)**

김양호 전원일 주영화 황영만  
 최병훈 김경식 권동식 우종문  
 김동연 김영재 권병구 문관영  
 안하영 이인재 김대식 한춘석  
 김대희 서종원 김남호 안형영  
 이봉상 박인선 전상태 엄화숙  
 김기훈 김인권

**中央(73.4.8)**

배광일 설 딘 김용석 홍종범  
 이인호 서광진 김호연 최만식  
 엄도문 조은목 홍정환 김용혁  
 김하문 김삼희 이상걸 정기준  
 김경환 이애경 김순영 한중식  
 조종희 조대식 박철호 황영희  
 박오영 원희복 박순자 김용식  
 정춘기 임정만 이노상 윤태수  
 최광운 김인호 이태홍 김동근  
 박간준 안재웅 오광록 강성남  
 송재환 김상태 황희만 배기복  
 윤재환 한덕원 황애숙 강현민  
 조상익 문상영 최용근 이동수  
 서인석 전성호 박영규 이종호  
 김윤택 김현태 박비호 이강재  
 채은석 김진호 고광서 송영석

송태범 한용우 윤영호 이한우  
 김승재 서상일 정경남 한인종  
 이경표 정영현 이태영 조대희  
 김석범 정종준 박상우 김갑규  
 마상걸 한 호 박성규 최지환  
 조경형 박영성 송덕환 도진용  
 이장훈 엄병일 박영주 김환기  
 박기만 조남일 고대송 정영욱  
 박형선 문선득 이승모 이대섭  
 박종국 김 압 위상정 김완복  
 이재일 장병도 이이성 신기산  
 오병호 김상희 정 섭 안귀섭  
 김상배 전영근 김태형 김종식  
 임병국 박찬양 박주원 이남일  
 박승필 이명준 박재용 박승윤  
 박노순 윤영노 박승태 한용득

**배서탁**

**全北(73.4.8)**

김승식 최병관 임현호 김시근  
 오승철 나용균 김영남 김용화  
 최홍규 이갑식 김정휘 결천수  
 노영숙 이재철 박영준 강인수  
 나승원 안동호 송기춘 박남근  
 박지일 김영식 문환기 김강덕  
 조기경 김현영 이상근 소영호  
 유영호 이은재 허기희 김용배  
 조영기 박승수 조기동 유행규  
 허윤석 이재만 박병규 황성주  
 장송원 송종택 김의식 권태수

**부산(73.4.15)**

서일교 김경환 하문석 김진우  
 진진발 최 성 조병계 황태홍  
 최용식 원성희 이증우 정모관  
 김영재 어문수 안경홍 이동철  
 장도상 최항진 강경주 김세환  
 조경호 정수두 현일진 이선담  
 정석훈 안호상 김완주 이경철  
 임종모 권중희 강형모 이영준  
 권문석 박상덕 이영수  
 최삼익 고재성 김정기 신성우

백봉규 장경석 강대보 박수익  
 이영재 김상현 이영관 김재신  
 김연서 권오인 김영석 박재연  
 이종도 김성광 강찬민 김금택  
 오윤태 권오섭 배기업 최금용  
 이재훈 김철근 홍성욱 윤홍국  
 김정호 김화철 김경식 박정하  
 진병식 조황진 우재봉 김수환  
 이정길 김석철 주성민 김항비  
 이한일 정태진 이영준 이호영  
 김철욱 이희원 성용락 정주희  
 이춘남 김길상 양문영 김일호

**京畿(73.4.29)**

허 현 김용수 이상용 조삼용  
 윤광서 허인무 최경복 배호현

**忠北(73.4.29)**

이봉재 최동춘 강언오 박정열  
 광동기 김대현 신승화 정건호  
 조일형 윤영범

**慶南(73.4.29)**

곽상훈 이강석 전진근 이덕자  
 김수령 정동석 이석민 최무일  
 이동열 원태문 조규철 오창섭  
 임관혁 배한식 박현영 서태화  
 이성기 이성진 강현효 김정열  
 이장홍 박만상 이석중 신현길  
 김중효 김중길 김진석 이종화  
 심재진 문창동 양현자 엄광섭  
 김광철 김영관 신원기 오영진  
 김용건 이형규 하창균 이남재  
 성동항 권승한 이흥진

Michael L. Kinstley  
 Norman Dale Brown Sr.  
 Choi, Hul Vorbach

**跆拳道로 國民總和, 維新課業 完成하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妙技스냅

아! 이感激 永遠 하여라



# 제 1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THE 1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 大会場전경

Kuk-Ki-Won where the championships was held.



♣ 입장식 광경

The Opening Ceremony of the First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알파벳순으로 入場하는 各國선수단

Competitors and officials of the participating nations are entering in alphabetical order.



시범장면

A Tae Kwon Do demonstration by seoul primary School boys.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경기스냅 A highlight of the First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개인전 경량급 입상자들.**

Winners of the Individual competition in the light-weight Championships. Champion-Korea.  
 Runner-up-West Germany.  
 Third Place-West Germany,  
 U. S. A.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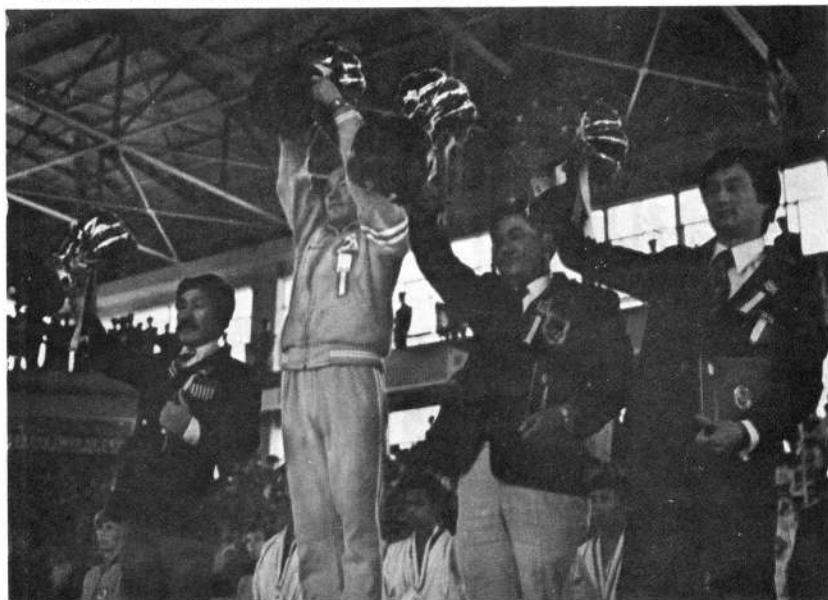


**개인전 중량급의 입상자들**

Winners of the Individual Competition in the heavy-weight Championships. Champion-Korea  
 Runner-Up-U. S. A. (East)  
 Third Place-U. S. A. (Middle)  
 U. S. A. (East)

**단체전 입상팀**

Winners of the Team Competition. Champion: Korea , Runner-up: U. S. A. (East), Third Place-China Mexico



# 세계태권도연맹창설!



지난 5월 28일 국기원에서 17개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되었고, 총재에 김운용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 is organized in the inaugural meeting at Kuk-Ki-Won on May 28 by the 17 different nation's representatives and president Kim Un-yong i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金雲龍 會長을 禮訪한 大山培達氏(左)와 日本空手聯盟 専務理事 江里口代, 日本体育會理事「후지키」氏(下)

President Kim Un-yong receives courtesy calls from Mr. Mass Oyama, a Korean resident in Japan, left, and Mr. Kuchi Eri, director of the Japanese Karate Federation and Mr. Fuji Ki, director of the Japan Amateur sports Ass'n., below.



# 이런 일 이런 일



## 必勝을 다짐하는 결단식광경

A scene of the formation ceremony of the Korean team in which members listen president Kim Un-yong's wishes. ♫

金雲龍會長이 베푼 각국선수환영「리셉션」에서……「싱가폴」「팀」

In a welcome reception in honor of the participating nation's competitors President Kim Un-yong, center, is pictured with the Singapore team. ♫



Mrs. Lacoste, head of the France team, left, presents France team's flag to Mr. Lee Kyo-yoon, head of the Korean team.

「프랑스」 「라-코스트」 단장이 한국의 李敎允 단장에게 「프랑스」 단기를 기증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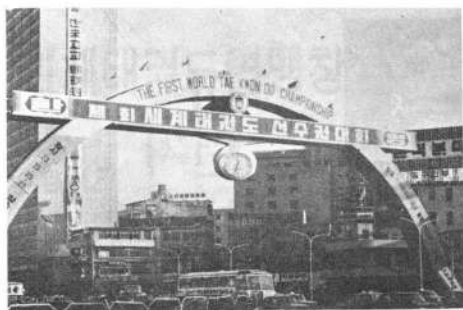


만찬에서 각국대표들이 金雲龍會長을 위해 축하하고 있다.

A cheerful toast for President Kim Un-yong from the representatives of nations in a banquet held in honor of the officials of the participating na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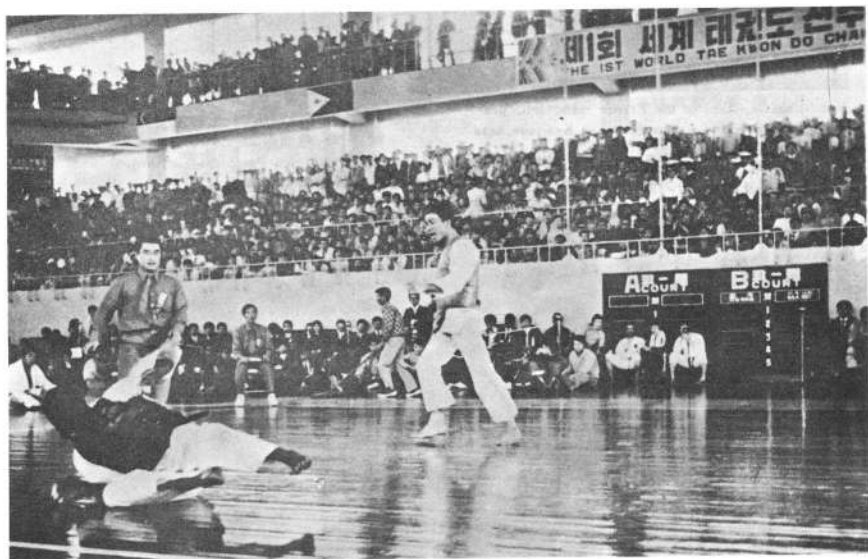




# 세계태권도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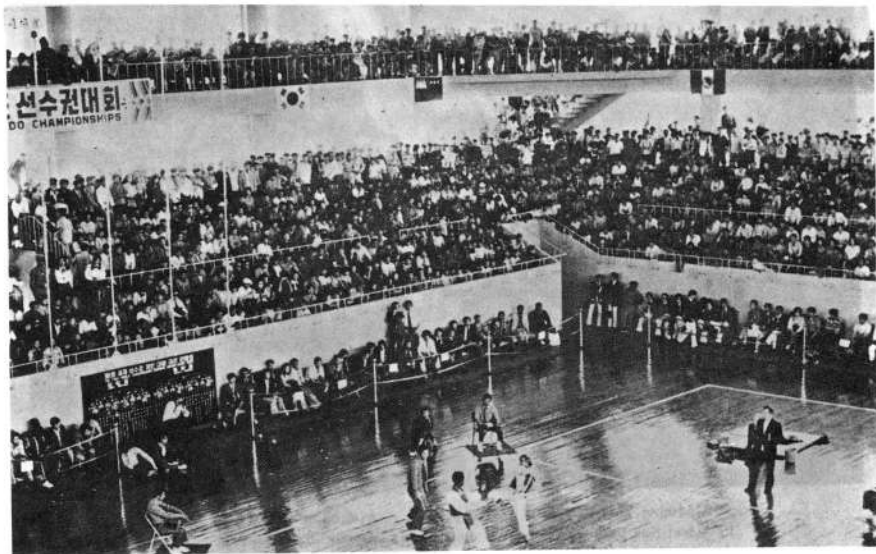
경기장면



# 선수권대회 스냅



Scenes of the championships





歴史的인 개최사를 낭독하고 있는 김운용회장과 내외 귀빈들.  
President Kim Un-yong addressing the opening ceremony.



폐회식에서 金雲龍회장이「오스트리아」 선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President Kim Un-yong Presents a diploma to a Austria Competitor in the closing ceremony.